



「충남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 역사적 가치와 정신 계승을 향하여 -

Ⅰ 일 시 : 2019. 4. 5(금) 14:00 - 17:30

Ⅰ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주 관 : 충남연구원
- 후 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목 차

□ 개회사 및 축사

- 윤 황 충남연구원장 ----- 1
- 이공휘 충남도의원 ----- 3

□ 주제발표

- 기조강연 :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유산과 계승 ----- 5
 윤경로 한성대학교 전 총장
- 주제발표 1 :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 15
 김진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주제발표 2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 : 100주년 기념 충남인의 독립정신계승 방안 모색 ----- 49
 정을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토론문 ----- 55

행사소개

□ 행사목적

- 2019년인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100주년을 맞아 정부와 민간의 전 영역에서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외세 침탈에 대한 항거와 국권 회복에 과정에서 충남은 중심 역할을 하였음. 충남 전역에서 이루어진 3.1만세 운동과 독립항거는 충남의 정신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귀중한 자산임
- 따라서 본 세미나는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남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겨 충남도 차원에서 민족애와 독립정신의 계승·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음

□ 행사개요

- 일 시 : 2019년 4월 5일(금) 14:00-17: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주 관 : 충남연구원
- 후 원 :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참가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기조강연	한성대학교	전 총장	윤경로	
주제발표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박사	김진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을경	
토론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정은	좌장
	충남도의회	도의원	이공휘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소장	박종선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팀장	김성균	
	공주대학교	교수	진종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정철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사무국장	곽승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김은지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동언	

회 순

14:00 ~ 15:00	개회식 및 기조 강연 : 사회 박철희 실장(충남연구원)	
3'	개회사	윤황 원장 (충남연구원)
4'	축하 동영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위원장)	김동춘 교수 (성공회대)
3'	축사	이공휘 의원 (충남도의회)
50'	기조 강연_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유산과 계승”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위원장)	윤경로 전 총장 (한성대)
15:00 ~ 16:00	주제 발표 : 좌장 이정은 교수(순천향대)	
30'	발표1 :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김진호 박사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30'	발표2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 100 주년 기념 충남인의 독립정신계승 방안 모색”	정을경 책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6:00~16:20	중간 휴식	
16:20 ~ 17:10	지정 토론 : 좌장 이정은 교수(순천향대)	
각 7~8'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휘 의원(충남도의회) ○ 김성균 팀장(충남도청 문화정책과) ○ 진종현 교수(공주대학교) ○ 곽승일 사무국장(천안시동남구문화원) </div> <div style="width: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종선 소장(백석대 유관순연구소) ○ 이동언 소장(선인역사문화연구소) ○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 김은지 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div> </div>	
17:10~17:20	종합 토론	
17:20~17:30	정리 및 폐회	

<개회사>



충남연구원
원장 윤 황

3.1혁명 및 임정수립 100년, ‘충남인’의 이름으로 ‘건국 100년’을 찬양하리요!

충남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가 후원한 오늘 세미나에 아름답고 고은 봄꽃 소식을 안고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에 앞장섰던 충남인의 뜨거운 조국사랑, 민족사랑, 민주사랑을 가슴에 담고 오늘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충남인의 정신적 계승을 향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떠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3.1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성”의 주제로 귀한 말씀의 기조강연을 해주신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님, 세미나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은 교수님,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의 발제자이신 김진호 박사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의 발제자이신 정을경 연구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오신 이공휘 도의원님, 박종선 소장님, 권영택 과장님, 이동연 소장님, 진종현 교수님, 박정철 박사님, 박승일 국장님, 김은지 연구원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주권선언과 건국선포가 이루어진 원년입니다. 1919년은 3.1운동의 결과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원년, 즉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건국해입니다. 이에 일제로부터

해방 후 1948년 헌법의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이라고 명문화했으며, 오늘날 헌법에서도 3·1운동, 독립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헌법적 가치 구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운동은 단순한 ‘민족독립운동’을 넘어 공화국 탄생의 ‘민주독립혁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서계신 바로 이 곳, 충남연구원이 위치한 충청남도 공주에서도 100년전 3월 14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지방차원에서 충남의 3·1운동은 다른 지방과 달리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선도적 귀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산, 논산, 부여, 천안, 당진, 홍성, 서산, 서천, 청양, 온양, 아산, 대천, 보령, 금산, 유성, 대전, 연기, 조치원 등 당시 충남 전역에서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술세미나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단초도 바로 충남지역 3.1운동, 그 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관련된 충남인의 독립건국 의지와 그 정신을 조명하자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이름난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들 모두는 바로 오늘날 “충(忠)”의 본원지 충남, 그 “충”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남,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지켜온 “충인(忠人)”으로서의 ‘충남인(忠南人)’, 그대의 이름으로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과 전문가 및 후손들이 모여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찬송, 찬양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한 충인, 충남인의 “충” 정신을 재탐색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 3.1혁명 및 임정수립 100년, 대한민국 건국 100년과 관련하여 충남인의 혼과 정신, 가치와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내외귀빈들과 함께 저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을 대표하여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주신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전성찰분과 위원님들을 비롯해 행사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자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선생님들께도 다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1혁명 및 임정수립 100년을 맞아 3.1혁명, 항일의병, 항일운동, 항일전투, 의열투쟁, 임정건국활동, 광복군활동, 계몽운동 등에서 빛을 발했던 충남인의 거룩한 분들, 그 분들 중 다음과 같은 몇 분 이름을 부르면서 ‘충남인’의 이름으로 ‘건국 100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한용운 선생님, 이종일 선생님, 유관순 선생님, 김복한 선생님, 이설 선생님, 민중식 선생님, 이남규 선생님, 최익현 선생님, 김한중 선생님, 신현구 선생님, 조병옥 선생님, 한훈 선생님, 홍범식 선생님, 김좌진 선생님, 양기하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동녕 선생님, 이세영 선생님, 이종건 선생님, 이상재 선생님, 오강표 선생님, 서재필 선생님...”

2019.04.05.

감사합니다.

<축사>



충남도의회
도의원 이공휘

충남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를 주최한 충남연구원,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절의 고장 충남에서의 애국선열들의 ‘대한독립만세’ 외침은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흔들었습니다. 3·1만세운동은 억압받던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는 자유의 소리이자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친 조국의 함성이었으며, 독립을 갈구하는 세계 약소국민들에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일어섰던 애국선열들의 투쟁과 자기희생은 우리민족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숭고한 열과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훌륭한 민족자존의 자산으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1989년 임시정부를 수립을 선포한 것을 근거로 그동안 4월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4월 11일을 임시정부수립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선열들의 희생과 고귀한 애국충정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충남의 발전과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갈 좋은 의견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론회는 총칼에 맞서 평화의 방패만으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선열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노력을 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5일

<기초강연>

3 . 1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유산과 계승

윤 경 로

역사학자, 전 한성대 총장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유산과 계승

윤 경 로(역사학자, 전 한성대 총장)

1. 3·1운동은 민(民)이 주도한 ‘혁명’이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역사용어에 매우 익숙해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학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회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3·1혁명’으로 개칭하자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3·1운동이라는 지칭에 별반 논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제헌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수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후략)이라는 문구는 변한 적이 없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은 명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이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왈가왈부 하지 못했는지 모른다. 이를 문제로 삼으면 마치 헌법을 부인하는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법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즈음 그간 신성시해온 ‘3·1운동’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볼 필요가 있다. ‘3·1운동’이 지닌 역사적 무게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많았던 여러 ‘운동들’의 하나로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3·1운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일종의 역사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3·1운동은 개항 이후 타율적으로 진행된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바로세우기 위한 여러 형태의 수많은 세류(細流)들, 곧 여러 모양의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쌓여 1919년 3월 전 민족과, 전 계층이 함께하여 ‘큰 강’ 곧 대하(大河)를 이룬 대사건이라 정의해왔다. 우리역사학계에서 이 사건을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구분의 분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러한 ‘3·1대사건’이 지닌 남다른 역사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익히 아는 대로 1919년 ‘3·1만세사건’의 사건당시 명칭은 ‘소요’ 혹은 ‘폭동’이었다. 마치 1894년 반제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꺾기한 동학농민혁명을 과거 ‘동학난’이라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대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에서 볼 때 그것은 ‘폭동’이고 ‘난’이었다. ‘동학난’이라는 용어가 사건 당시는 물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도 ‘난’으로 불렸음은 당시 역사인식이 그만큼 치자(治者)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용어로서의 ‘운동’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투쟁’, ‘항쟁’, ‘혁명’이라는 의미에 비해 역사성이 덜한 인상을 준다. 또한 우리는 지난 100여 년 간 거의 ‘3·1운동’으로 불려왔기에 귀에도, 입에도, 눈에도 익숙한 것에 반해 ‘3·1혁명’이라는 용어는 생경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해석학이다’라는 말이 있듯 지난 과거의 사실(事實, facts)은 변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史實, historical facts)에 대한 역사인식은 앞서 언급한 ‘동학난’이 ‘동학농민혁명’으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듯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3·1운동’이라 지칭해 온 것을 ‘3·1혁명’으로 바꿔보자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는 지칭해 온 선례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즉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는 일찍부터 ‘3·1혁명’이라 지칭했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까지는 ‘3·1운동’과 ‘3·1혁명’이라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이후 보다

본격적인 독립전쟁과 혁명적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3·1운동’에 대한 인식도 더욱 고무되어 이후로는 이를 프랑스대혁명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비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혁명’이라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예컨대 1938년 중국 장사(長沙)에서 거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주관한 3·1절 기념식에서 그러했고, 같은 해 4월 <조선민족전선> 창간호 기사에도 ‘3·1대혁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1941년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 기관지인 <光復> 1941년 2월 창간호에서도 3·1운동을 “1919년의 전민(全民) 대혁명”이라고 규정하는 등 이후 ‘대혁명’이라는 명칭을 자주 볼 수 있다. 1943년 6월 재 창간된 <獨立新聞> 창간호에서 “제1차 세계 대전 후에 한국에서는 위대한 3·1대혁명운동이 발생했다”는 요지의 창간사를 실었다. 그리고 이후 기사에서도 ‘3·1대혁명’이란 용어를 자주 볼 수 있다. 해방직전은 물론 1944년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 서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전략)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폐망된 뒤에 전 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 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후략)

이상에서 보듯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3·1혁명’ 혹은 ‘3·1대혁명’으로 부르며 ‘운동성’ 보다는 ‘혁명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방 직후에도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이승만과 김구 등의 연설에서도 ‘3·1혁명’ 혹은 ‘3·1대혁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제헌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초안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었다.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한 의원(조국현)이 “일본에게 뺏겼든 그놈을 광구(廣求)하자는 운동인 만큼 ‘항쟁’이라 할 지언정 혁명은 아니다”라고 하며 반대 발언을 하자 당시 의장으로 사회를 보던 이승만이 “내가 절대 찬성합니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만 본인도 이전까지 ‘3·1혁명’ 용어를 즐겨 썼고 초안에도 동조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후에도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평소 ‘3·1운동론’을 지지해온 한민당 주장대로 ‘3·1혁명’이 ‘3·1운동’으로 최종 수정 통과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소요’에서 ‘운동’으로 다시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운동’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로서 ‘헌법적 권위’를 갖게 된 ‘3·1운동’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수차례 걸친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성역화 되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용어 채택은 매우 중요하다. 엄혹하고 치열했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1운동’이 지닌 역사성은 ‘운동’ 차원을 훨씬 넘는 ‘혁명성’이 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민족내부의 기존체제를 전복한 ‘혁명’은 아니지만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왕조의 ‘제국(帝國)’에서 백성이 주인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세운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3·1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 1911년 신해년(辛亥年)에 쑨원(孫文)을 중심으로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했다. 즉 여러 천 년간의 봉건왕조를 마감하고 1911년 민국(民國)을 탄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신해혁명’으로 역사화했다. 다시 말해 고래로부터의 내려오던 봉건왕조와 왕권을 종식시

키고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중화민국이 탄생되었기에 이를 기리어 ‘신해혁명’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점에 주목할 때 중국의 신해혁명과 우리의 ‘3·1혁명’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중국은 혁명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못쓰는가. ‘3·1혁명’이라는 큰 강(大河)을 이루기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잔물줄기(細流)를 지칭하는 ‘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다 하겠다.

2. ‘3·1운동’의 이념과 정신

3·1운동의 이념과 정신은 <3·1독립선언서> 내용 속에 잘 담겨있다. 이를 요약 정리하자면 첫째 自主獨立 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 첫 대목은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로 시작된다. 이에서 보듯 3·1운동이 추구한 이념과 정신의 첫 대목은 ‘자주와 독립’이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한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자손만대에 알리며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려했다. 이같은 자주독립정신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남북으로 나라가 양단되어 70여 년이 흐른 분단시대를 극복 못한 현실을 직시할 때 자주독립의 3·1정신과 이념은 향후에도 우리민족이 계승해야 할 절대가치다.

둘째는 自由民主 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에는 밖으로부터의 자주적인 독립권의 회복이라는 외적인 목적에 이어 안으로는 우리 조선민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함’과 ‘오직 自由的인 精神을 發揮할 것’을 천명했다. 이렇듯 자주독립국을 세우려는 근본목적은 “조선인이 본래부터 지켜온 자유권을 지켜 왕성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려한다”(我의 固有한 自由權을 護全하여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는, 다시 말해 ‘自主民’ 곧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념을 제일의 정신으로 삼고 있다. 결국 자주독립된 나라를 세우려한 근본목적과 취지는 자주독립된 나라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보장받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사회, 곧 主權在民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주독립된 나라 수립은 자유민주사회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나라의 주인인 백성(民)들의 자유와 민주정신을 담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 건설만으로는 3·1정신의 완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정신’은 3·1정신이 우리에게 준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자, 기리 계승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人類共榮의 平和정신이다. <3·1독립선언서>에 “조선의 독립은 조선만이 아니라 일본이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중국 또한 몽매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동양평화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에 필요한 계단(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풀어 말하면 일본이 침략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향후 한·중·일 3국이 동양평화를 이룰 때 세계평화와 인류행복, 곧 인류공영의 평화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같은 <3·1독립선언서>에 담겨 있는 동양평화와 세계평화 및 인류공영의 평화정신은 1909년 이토(伊藤博文) 저격을 결행한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제창한 ‘동양평화론’을 재삼 떠올리게 한다. 그는 동양3국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의사가 제안한 ‘3국 평화안’은 현재 유럽연합국(EU)에서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되었다. 작금 여러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역학관계를 유념할 때 매우 주목할 만한 제안이자, 정신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민족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3·1정신의 주요 덕목 중의 하나인 인류공영과 평화정신을 3국간에 공유하며 체화하고 실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우리민족이 나아갈 꿈과 비전(Vision)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전개

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投射하기 始하도다”에 잘 나타나있듯 <3·1독립선언서>에 담긴 또 하나의 3·1정신은 우리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제 이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침한 옛집(古巢)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欣快한 復活’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희망찬 비전 제시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아닐 수 없다.

3·1운동이 ‘민(民)을 중심한 혁명’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민족대표 33인과 관련해 더 언급하고자 한다. 언제부터인가 민족대표 33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며 폄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선언하는 엄중한 자리에서 술판을 벌렸느니 태화관 여주인과 시비를 벌렸느니 더 나아가 이들 대표 중 대부분이 변절을 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 아닌 낭설이 퍼졌다. 물론 33인 중 두서너 사람이 훗날 변절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점만으로 민족대표 전체를 싸잡아 추태를 버렸다든지 변절자로 폄하,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실제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엄혹한 상황에서 3·1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3·1정신을 흐리게 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키는 역사 ‘자해행위’라 하겠다.

익히 아는 대로 민족대표 33인은 예외 없이 종교인들이었다. 당대 최고의 교세를 떨치던 민족 종교인 천도교계 15인, 기독교계 16인 그리고 불교계 2인으로 결성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바는 이들 민족대표 33인은 누가 시켜서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임하여 민족대표로 나선 분들이었다. 3·1거사 초기 준비단계에서는 본래 민족대표로 당대 지명도가 높고 과거 고관대작을 했던 유명인사들, 예컨대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등으로 명성이 높았던 개화파 인물 박영효(朴泳孝), 구한말 대신 출신인 한규설(韓圭晔), 윤웅렬(尹雄烈) 당대 최고의 개화 지식인으로 지명도가 높았던 윤치호(尹致昊), 심지어 이완용(李完用)도 거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민족대표 자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결국 종교인들이 나서게 되었다. 당시 이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지도, 명성도 별반 없던 종교인 인사들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이들 33인이 예외 없이 모두 평민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33인을 종교계 인사라는 점에만 주목해왔는데 3·1거사의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운동을 넘어 ‘혁명’으로 역사화 한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 민족대표 33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이 평민, 서민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천도교 교령 출신인 손병희를 비롯한 권동진, 오세창 등과 기독교계의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등 그리고 불교계의 백용성, 한용운 등 33인은 예외 없이 평민 출신들이었다. 3·1거사 후 40여 일 만에 나라의 주권과 국권이 일반백성 곧 평민에게 있는 나라 곧 주권재민의 대한민국을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이렇듯 민족대표 33인이 평민출신이었다는 점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1919년 4월 10일 상해 독립임시사무소에 모인 초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하룻밤을 새워가며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憲法)을 제정한 후 정부 수반을 선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를 수립하였다. 지난 해(2018)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1919년 4월 11일로 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 날 임정,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 10조개 조항>을 결정하였다. 이 중 ‘3·1혁명’과 관련해 몇 개 조항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3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서의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음”(5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임시정부는 국토회

복 후 만 1년 내 국회를 소집함”(10조) 등 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 정리해보자. 첫째, 3·1혁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정을 잉태시켰다. 3·1혁명 이후 왕정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으니 이후 복辟파(復辟派)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帝國’에서 ‘民國’으로, ‘臣民’에서 ‘民人’이 나라의 주권자로 우뚝 선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

둘째, 처음으로 여성(女性)들이 사회변혁의 전면에 나선 사실 또한 혁명적 변화였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남녀노유가 차이가 있을 까닭이 없었겠으나, 여성들이 대거 현실참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 시기에 비할 때 획기적 국면전환이자, 역사발전이 아닐 수 없었다. 셋째, 기생 해녀 백정 광부 등 아직 봉건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분적 차별을 받던 계층이 역사전환의 주체적으로 떠올랐던 점 또한 혁명적 변화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선 주력이 민중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천민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만세시위에 적극 참여함으로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떠올랐다.

넷째, 3·1운동 이후 전면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수다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와 같은 독립군양성학교가 생겨났다. 이들은 봉오동전투(鳳梧洞戰鬪)와 청산리대첩(靑山里大捷)으로 상징되는 독립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전사들이 양성 독립전쟁에 나섰다. 다섯째, 좌우세력이 통합하여 민족협동전선(民族協同戰線)을 구축하였다. 초기 임정이 그러하였으며 이후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통합 지향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좌우통합, 통일국가 수립의 여망으로 맥을 이어 나갔다. 여섯째, 제국주의 지배하에 신음하던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孫文)이 독립선언에 이은 만세시위를 ‘혁명’이라 평가하였으며,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R. Tagore) 또한 조선을 가리켜 ‘東方의 등불’이라 칭송한 것도 이 시기였다.

요컨대 3·1운동과 3·1정신은 민족이 당면했던 자주독립의 목표를 넘어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몸으로 실천한 혁명적 대 사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반제국주의 민족혁명인 동시에 반봉건적 민주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겠다. 더욱이 3·1항쟁이 배태한 이러한 혁명성이 앞에서 보듯 대한민국임시헌장과 정강정책으로 승화되었으니 이는 선언적 차원을 넘는 혁명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7-8년 겨울 ‘촛불’들이 외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함성은 기실 그 원천을 3·1정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재확인한 큰 울림이었다 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3·1혁명’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이야말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가 일찍이 적시한 ‘역사의 동시성’이라할 것이다.

3. 3·1정신의 계승과 과제

3·1운동의 이념과 정신의 첫 덕목은 自主獨立 정신이다. 바로 이 정신을 모든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것이 3·1정신을 계승하는 첫 과제라 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 같은 ‘反共’ 일변도 국가관을 주입해 온 교육과는 달라야 한다. 올곧은 자주독립 정신을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수준에 맞게 다듬어 교육할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는 自由民主 정신이다. 대외적으로 자주적이며 독립된 국가를 세워나가는 근본목적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民人)들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보장된 사회와 나라 건설에 있다는 점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人類共榮의 平和정신이다. 현 시대를 흔히 지구촌시대(Global Age)라 한다. 교육의 최종목

표 또한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열린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작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100전 <3·1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欣快(흔쾌)한 復活(부활)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그 대목처럼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만한 변화의 물꼬가 트여가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이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과 벽이 높고 두텁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변화의 물줄기는 결코 누구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지난 70년간의 대립과 반목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을 넘어 평화의 한반도,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한 희망찬 행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할 때 비로소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자주독립, 자유민주 그리고 인류공영의 평화를 지향했던 100년 전 우리 민이 추구했던 <3·1독립정신>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 믿는 바이다.

넷째 우리민족이 나아갈 꿈과 비전(Vision)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전개되도다.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도의의 시대가 來하도다.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投射하기 始하도다”에 잘 나타나있듯 <3·1독립선언서>에 담긴 또 하나의 3·1정신은 우리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준 점이다. 이제 이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음침한 옛집에서 뛰쳐나와 ‘흔쾌한 부활’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는 희망찬 비전 제시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과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맺는말

이상에서 3·1운동의 남다른 역사성(혁명성)과 3·1정신 등을 정리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이 역사성과 3·1정신을 어떻게 현실과 미래에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근현대사는 참으로 지난한 굴곡의 아픔을 감내해 온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타율적 개항으로 근대사 진행이 매우 왜곡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극복해보려는 수많은 운동들을 전개했지만 종국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찬 항일독립운동 끝에 민족해방의 광복의 날을 맞이했지만 6·25 동족상쟁으로 강토가 두 동강난 후 지난 70여 년 간 민족분단시대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근현대사는 좌절 - 수난 - 분단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해방직후와 6·25전쟁으로 인해 전 강토가 폐허화 된 한반도를 오늘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남한의 경우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크게 발전했으며 1인 독재국, 군사독재국가에서 명실상부한 민주시민국가로 크게 발전했다. 이 사실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갈 길과 방향 그리고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관한 견해와 방안은 전문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필자의 개인적 소견을 피력해 본다.

한마디로 ‘文化大國’ 그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민족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생각해 왔다.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쩌면 벌써 오래 전에 지구상에, 역사상에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렇듯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민족이 이렇듯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사적 미션(mission)은 과연 무엇일까. 경제대국일까, 군사대국일까. 아니다. 우리민족에게 맡겨진 인류사적 사명과 역할과 특성은 큰 틀에서의 文化라고 생각한다.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fact) 가운데 하나가 큰 틀의 문화(文化)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문화의 한 부분인 종교를 사례로 들어보자. 세계의 유수한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꽃을 피웠다.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가 삼국

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에 와서 꽃을 피웠으며, 유교 또한 한국에서 성리학으로 발전하여 그 이념과 철학이 완성되었다. 한국이라는 대륙 동쪽 한 구석에 반도국가로 위치한 ‘작은 나라’가 그것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반만년 동안 그 숯한 외세의 침략과 수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필자는 이를 한마디로 ‘문화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물론 정부 각 부처 행정과 정책의 큰 방향이 ‘문화대국’을 향한 다양 다기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모아졌으면 한다.

* 필자소개

윤경로(尹慶老)(1947년생)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취득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1981-2012)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현재 이사장)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객원교수(1999-2000)

북경대학교 역사학계 대학원 초빙교수(2009-2010)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2003-현재)

한성대학교 총장(2005-2009)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이사(2001-현재)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억기념분과 위원장(2018- 현재)

<연구저서>

『105인사건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새문안교회, 1995.

『한국근현사의 성찰과 고백』, 한성대학교출판부, 2009.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번역서>

『105인사건과 공판 참관기』

(The Korean Conspiracy Trial, 191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훈장 및 수상>

* 청조근정훈장(945호)

* 독립기념관 학술상(2013)

<주제발표 1>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김진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3·1독립운동의 전파
3. 3·1독립운동의 전개
4.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5. 3·1독립운동의 의의
6. 맺음말

1. 머리말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직접지배체제인 헌병무단통치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이 군사적 무력으로 약소국을 침략해 지배하고 독점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적 약탈을 자행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제국주의가 팽배했다. 세계사적 흐름 속에 아시아의 국가로서 일본이 제국주의국가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일제는 국내적으로 자국의 발전보다는 손쉬운 해외 침략을 통한 국가 발전 정책을 강행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강제로 체결시킨 일제는 조선 침략을 노골화했다. 이에 한국인들은 외세 제국주의자 침략에 국권을 지키며 근대 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해결할 겨를도 없이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군사적 무력 개입을 하며 제국주의국가들의 묵인과 비호 속에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했다. 일제의 헌병무단통치 하에서도 한국인들은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항일독립전쟁을 준비했다. 한국인 모두가 민족적 첫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3·1독립운동이다.

충남지역의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1957), 『한국독립사』(1965), 『독립운동사』(1971), 『호서지방 3·1운동의 성격』(1987), 『3·1운동실록』(1994), 등을 통해 개설되었고 『한국독립운동사의 역사』(20, 2009)에서 상론되었다. 논문들은 1990년대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¹⁾ 이후 『충남지방 3·1운동 연구』의 학위 논문이 발표된 이후 충남지역에 대한 3·1운동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²⁾

1) 정명진, 「공주면 3·1독립만세사건의 전말」, 『웅진문화』2·3합집, 1991 ; 김진호, 「공주지역의 3·1운동」, 『공주의 역사와 문화』,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 김남석,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의 고찰」, 『내포문화』,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96 ; 김진호, 「대전지역의 3·1운동」, 『대전문화』8,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9 ; 「청양지역의 3·1운동」, 『충남사론』12, 충남사학회, 2000 ; 도윤정, 『천안지역의 3·1운동』,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2)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연기지역의 3·1운동」, 『호서지방사연구』(호운최근목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003 ;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 「서천지역의 3·1운동」 『충청문화연구』창간호,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 ; 「대전지역 3·1운동 연구 현황과 과제」 『충청문화연구』3,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9 ; 「예산지역의 3·1운동 전개와 의의」, 『충청문화연구』8,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2 ; 「보령지역 3·1운동과 장서운동」 『충청문화연구』15,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5 ; 「아산시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75,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 「청양지역 3·1운동과 일제 탄압」 『충청문화연구』16,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6. ; 「충남지방의 햇볕독립만세운동」,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편, 2019 ; 김남석, 『일제강점기 당진지역 민족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양희, 「부여인의 3·1운동전개와 천도교」, 『한국독립운동』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도장관보고철,³⁾ 「판결문」, 『매일신보』 등을 참고 자료로 충남지역 3·1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⁴⁾

2. 3·1독립운동의 전파

충남지역은 민족대표나 독립선언 추진 세력과 연계되지 않았다. 다만 야소교 계통에서 2월 21일 이갑성(李甲成) 집에서 회합한 후 박희도(朴熙道)의 부탁을 받은 김세환(金世煥)은 독립청원서에 서명할 동지들을 규합하러 서산(瑞山)에서 왔었다. 그러나 그는 지지 세력을 얻지 못하고 2월 24일 밤에 상경했다. 또한 인종익(印宗益)과 김병수(金炳洙)가 각각 전주와 청주, 군산에 독립선언서를 교부하기 위해 대전을 경유했으나 대전에는 독립선언서가 배부되지 않았다. 충남지역에 독립선언서가 도착한 것은 3월 2일이었다. 인종익이 이종일(李鍾一)에게 독립선언서 2,000매를 받아 전주교구실에서 김진옥(金振玉)에게 1,700매를 전달했다. 김진옥이 배부한 독립선언서가 3월 2일 이리(裡里) 천도교구 이중열(李仲悅)에게 전달됐다. 이중열은 송일성(宋一成)에게 함열(咸悅) 교구장 최재봉(崔在鵬)에게 교부하고 또한 강경(江景)에 배포하라고 부탁했다. 송일성은 함열와리(瓦里)로 가서 최재봉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그 가운데 31매를 받아 강경에 배포했다.⁵⁾ 한편 최재봉에게 독립선언서 약 40매(2묶음)를 받은 민영순(閔泳淳)은 그의 지시대로 오후 6시경 논산 옥정의 천도교구실로 가서 교구장 손필귀, 김태호(金泰昊), 이백순(李伯純)에게 교부했다.⁶⁾ 이어 김태호는 한 묶음을 가지고 부여로 가서 오후 9시경 부여천도교구실에서 황우열(黃宇烈), 박성요(朴性堯), 이범인(李範仁) 등 6명에게 교부했다. 이들은 3월 3일 새벽에 부여 읍내와 군내 각 면에 천도교도나 군내 거리에 배포했다. 이백순도 3월 3일 오전 2시 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한 묶음을 가져 나와 논산 읍내와 여러 곳에 배포했다. 즉 충남지방에서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이어 3월 3일 논산과 부여 각지에 독립선언서가 배부되고 배포되었지만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3월 초순에는 충남지방 각처에 독립선언과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실이 전파되었다. 3월 3일 충남 최초로 독립만세를 외친 예산 윤칠영(尹七榮)은 오후 5시경 친구 4명과 음주하면서 일본과 경성에서 유학생 및 학생 등이 단결해 ‘한국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오후 11시 30분경 예산 동쪽 산 위에 올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발업에 종사하던 윤칠영(28세)이 친구들과 독립운동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3월 3일에는 경성의 독립만세

사연구』6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 당진군·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당진대호지 4·4독립만세 운동』, 2007(학술고등용역보고서).

김상기, 「서산지역 3·1운동의 전개」, 『서산의 문화』제18호, 서산향토문화연구회, 2006 ; 「도의의숙과 대호지 3·1운동」, 『사학연구』90, 한국사학회, 2008 ; 「부여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특성」, 『충청문화연구』2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8.

3)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는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其1 ;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其7’이고 도장관보고철은 ‘騷擾事件에 關한 道長官報告綴 7冊의 內4’이다.

4) 본고는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도장관보고철, 「판결문」, 『매일신보』, 『한국독립사』(1965), 『독립운동사』(3권, 1971) 등을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알려진 독립운동과 관련한 각주는 생략한다.

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1919.04.23. ;) 대정8년형공제367호, 대구복심법원, 1919.05.10. ; 대정8년형상제 172호, 고등법원, 1919.6.12.).

그러나 강경에 독립선언서 배포와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6) 『매일신보』 1919년3월13일자 3면1단, 「충청남도 - 論山(론산) - 주모자를 검거」.

보도에 의하면, ‘지나간 이일 밤에 리리 턴도교인 『민영순』이가 선언서를 론산턴도교구당 손필귀 외 두명에게 주어 론산 시내에 헛흔 것을 동디 주재소 순사가 발견하고 직시 손필귀 외 두명을 잡아 강경경찰서로 보내여 …’라고 했다. 2명은 김태호와 이백순이다(판결문(대정8년공제95호, 광주지방법원, 1919.04.04.)).

운동이 예산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종의 국장 장례에 참여한 인사들이 경성의 독립만세운동을 목격하고 귀향해 독립운동 소식을 지방에 전했다. 2월 26일 상경한 연기 전의의 이수옥(李秀郁)은 3월 6일 귀향해 마을 청년들을 규합해 3월 13일 전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2월 28일 당진 대호지의 유생 남주원(南柱元), 남계창(南啓昌), 남상락(南相洛) 등도 상경해 경성의 독립선언과 독립만세를 보고 귀향해 4월 4일 대호지 - 정미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했다.⁷⁾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머물렀던 아산의 박장래(朴璋來)는 3월 10일 공주로 와서 영명학교 조수 김수철(金洙哲) 집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경성의 독립운동 상황을 전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치도록 권유했다.

또한 경성에 유학한 학생들이 3월 10일 휴교령으로 귀가하며 독립운동을 전했다. 이화학당 학생인 유관순, 한복희, 박루이사는 각각 천안, 아산, 공주에서 경성의 독립운동을 전했다. 유관은 4월 1일 천안 갈전(병천), 한복희는 3월 31일 아산 염치의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박루이사는 공주영명학교 교사 이규상(李圭尙)에게 독립운동의 뜻을 전하고 실행을 종용했다. 그녀는 3월 23일 옥룡리 이활란(李活蘭)과 함께 영명여학교에서 김양옥(金良玉) 등 여러 명에게 ‘독립시위운동’을 권유했다. 그리고 3월 24일 영명학교에서 현석칠(玄錫七) 등 9명의 회합이 있고 이를 계기로 4월 1일 공주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그리고 청양 정산에서는 독립운동이 전개되던 3월 중순에 상경해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귀가한 홍범섭(洪汎燮)이 4월 5일 서정리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언론 통제로 금지됐던 독립선언과 독립만세 소식이 3월 7일자 『매일신보』를 통해 보도됨으로 지방에서도 독립운동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의 전개로 민족대표나 독립선언 추진 세력과 연계되지 않았던 충남지역에서도 3·1독립운동이 전개할 수 있었다.

3. 3·1독립운동의 전개

1) 지역별 전개

(1) 공주

공주의 3·1독립운동은 3월 7일 앵산공원에서 150명의 군중들이 회합을 했으나 일경이 해산을 강제함으로 흩어졌다. 이것이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첫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독립만세운동은 3월 14일 유구 시장에서 천도교 교도인 황병주(黃秉周)의 주도로 실행됐다. 그의 체포 구금으로 500명의 만세 군중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를 공격 파괴했다. 이어 3월 17일 그의 피고용인인 김희봉(金喜鳳)이 공주 시장에서 군중들에게 만세를 권유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중 박루이사(朴婁以士)의 권유 활동에 이어 3월 24일 영명학교에서 김관회(金寬會) 등 9명의 회합을 갖고 독립만세 실행을 결정했다. 참가자 권유 활동, 태극기 제작 및 독립선언서 인쇄 등의 준비를 하여 4월 1일 공주 시장에서 김수철과 영명학교 학생들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흔들고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같은 날 정안 석송리의 이기한(李綺漢)의 주도로 광정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를 공격 파괴하고 석송리에서 일제 군경과 충돌했으나 재차 주재소를 공격

7)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당진의 독립운동사』, 2013, 133~5쪽 참조.

했다. 이어 4월 2일에는 정안 광정리에서, 의당 태산리, 4월 3일에는 우성 동대리, 장기 대교리, 4월 4일에는 계룡 경천리, 목동(이인) 이인리에서, 주외 용당리에서, 4월 5일에는 반포 상신리에서 각각 주민들이나 면민들 300명~1,5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4월 1일 유구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후 밤에 산과 유구천에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고 장기 도계리에서도 주민들이 산 위에서 불을 놓고 만세를 부르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4월 2일부터 7일까지 장기, 의당, 우성, 사곡, 계룡, 주외, 목동, 탄천 등 8개 면내 마을에서 매일 밤마다 주민들이 산 위에 올라가 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⁸⁾ 4월 2일 우성 쌍신리, 도천리와 의당, 4월 3일 탄천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이 확인된다.

(2) 천안

천안의 3·1독립운동은 3월 14일 목천보통학교 학생 120명이 학교와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이어 3월 20일 입장 양대리에서 민금옥(민금옥) 등 광명여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직산금광 광부들의 참여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입장 시장까지 만세 행진을 전개했다. 3월 28일에는 박창신 등의 주도로 광부들의 참여로 입장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다음날인 3월 29일에는 이문현 등의 주도로 천압 읍내 시장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30일에는 연이어 입장에서 독립만세가 있었고 풍세 풍서리에서도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 이후 시장 일대를 활보하며 만세를 불렀다. 4월 1일에는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김구응, 김교선, 조인원, 유중권 등의 주도로 시장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제의 탄압에 항거해 일경과 주재소를 공격했다. 또한 성환, 직산에서도 독립만세를 불렀다.

한편 3월 30일에 풍세면내 20여 개소에서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고 4월 1일 병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기 수일 전부터 병천 읍내 주위 산 위에서는 횃불이 올랐으며 환성면에서 면내 각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3월 16일에는 군내 전화선에 500돈 중의 돈을 묶어 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3) 아산

아산의 3·1독립운동은 3월 11일 온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이어 3월 12일에도 학생들은 아산 시장에 나아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또한 3월 14일에는 현창규(玄昌奎) 등이 아산 시장에서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불렀고, 영인 아산리 시장에서 군중이 집합해 만세를 외쳤으며 오후 6시경 수백 명이 읍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다음날인 3월 15일에도 온양에서 군중들이 만세를 고창했다. 3월 18일에는 박민성(朴敏成)이 3명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기도 했다. 4월 4일에는 선장 군덕리 시장에서 정수길(丁壽吉, 奎熙) 등의 주도로 시장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를 공격 파괴했다.

한편 3월 31일 염치, 배방, 탕정 등 면내의 50여 곳에서 주민들이 산 위에 올라 불을 놓고 만세를 외쳤다. 염치 백암리에서 김복희(金福熙, 福述), 한연순(韓連順)의 주도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고, 중방리에서는 오봉환(吳鳳煥)이 주민들과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송악면내 주민들도 횃불독립만세를 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온양, 둔

8) 『매일신보』 1919년4월9일자 3면6단, 「충청남도-公州(공주)-각면의 소요」

기사에 '금일까지'의 금일은 4월 8일 기사 작성, 4월 9일자 발행임으로 4월 7일로 보인다.

포, 신창 등이 가세해 6개 면내에서 주민들이 햇불독립만세운동에 합세했다. 특히 둔포 운룡리에서는 햇불독립만세를 외친 주민들이 일본인들의 광혈(鑛穴) 20여 개소를 파괴하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신창에서 박진화 등의 주도로 읍내 주민들을 이끌고 학성산에 올라 불을 쥘리고 독립만세를 외친 후 하산해 면사무소, 주재소, 공립보통학교를 공격 파괴했다. 또한 4월 2일에서 3일 이틀동안 아산의 12개 모든 면내 각처에서 마을 주민들이 주위의 산에 올라 불을 놓고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영인, 인주, 둔포 등의 해안 지역에서도 햇불을 올렸다. 4월 3일 영인에서는 영인산에서 햇불을 올리는 것을 신호로 구 읍내에서 야소교 신자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4) 예산

예산의 3·1독립운동은 3월 3일 윤철영 등 5명이 독립만세를 외친 후 3월 9일에 예산리에서 만세를 부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헌병들에게 탐지되어 사전에 진압됐다. 그러나 3월 13일 대흥대흥공립보통학교 전교생 300명이 대흥 시장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1주일 후인 3월 21일에 또 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자 했으나 헌병들에게 발각되어 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10일 후인 3월 31일에 예산 시장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헌병분대, 군청으로 만세 행진을 전개했다. 4월 3일에는 고덕 한천(대전)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진압에 나섰다. 이에 장문환의 주도로 시장 군중들이 합세해 주재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4일에는 덕산에 덕산 시장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광시 하장대리에서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오후 8시 광시 면내 마을에서는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으며 다음날 오전 3시에는 4,000명의 면민들이 면사무소를 공격했다. 4월 5일에도 광시 하장대리에서는 40명과 250명의 군중들이 각각 독립만세를 외쳤다. 예산 시장에서는 박대영(朴大永), 최문오(崔文吾) 등이 주도로 2,000명의 시장 군중들이 합세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과 충돌하기도 했다. 예산에서는 4월 6일에도 1,0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5월 8일 성원수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헌병보조원 박동진(朴東鎭)을 공격해 부상시켰다.

한편 4월 3일 예산, 대술, 신암, 신양 면내 각 마을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예산에서 신례원주재소 부근에서 주민들이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이어 4월 4일에는 예산 군내 18개소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대흥 대울리에서는 정인하(鄭寅夏), 대술 대울리에서는 민제식(閔濟植), 신양 연리에서는 성원수(成元修, 允京)가 각각 주민들을 이끌고 마을 주변 산 위에 올라 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5) 홍성

홍성의 3·1독립운동은 3월 7일 홍성 읍내 시장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쳐 일경들에게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3월 8일에는 광천에서 이명종(李鳴鍾), 박원식(朴源植)이 독립선언서에서 주요 내용을 종이 2장에 옮겨 광천 시장과 웅암리에 부착했다. 그러나 일경이 탈취하므로 이들은 최응모(崔應模) 등과 서승태(徐承台)의 도움을 받아 독립선언서 내용을 복사해 3월 18일 광천리와 웅암리 일대 민가에 배포했다. 3월 21일에는 광천 시장과 은하 대천리에서 시장 군중과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어 10일 이후 4월 1일 금마 가산리에서 민영갑(閔永甲) 등의 주도로 임시 연극 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이 공연 도중에 독립만세를 외쳤고 일경에 체포되지 않은 인사들을 다음날 홍성으로 가서 읍내 시장에서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4월 5일 광천 광천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시도했으나 주재소 일경들이 사전에 제지해 만세를 부르지 못했다. 4월 7일 장곡에서는 김동하(金東河, 東化) 등의 주도로 화계리 주민들이 마을 앞산에서 만세를 부르고 도산리 응봉산으로 이동해 광성리, 가송리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 외친 후 면사무소로 이동해 공격 파괴했다. 다음날 4월 8일에도 도산리에서는 학생과 주민 60여 명이 모여 면사무소를 공격했다. 같은 날 고도 상촌리에서는 갈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경들이 출동하기 전에 피신했다. 이어 4월 9일에는 은하 장곡리에서 전명규(田明圭) 등 9명이 독립만세를 외쳐 일경에게 체포를 당했다.

한편 4월 4일에는 금마, 홍동, 홍북, 구항 등 4개 면내 20~24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금마에서는 500명의 군중, 장곡 화계리 등에서는 100명의 주민들이 횃불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홍동에서는 4월 5일에도 신기리를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가 있었다. 구항 황곡리에서 4월 7일에 이길성(李吉性), 황문수(黃文秀) 주도로 월산에 올라 주민들과 깃발을 세우고 불을 피워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4월 6일 홍북 상하리에서는 예산의 박성식(朴性植)이 김헌식(金憲拭)에게 흑립(黑笠)을 쓰고 다닌다며 갓을 망가뜨리고 구타하는 사례도 있었다.

(6) 청양

청양의 3·1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이 있는 한 달 후인 4월 3일 운곡 미량리에서 첫 시도가 있었으나 일경에게 사전에 탄압을 받아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첫 독립만세는 상경해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귀향한 정산 백곡리의 홍범섭(洪梵燮)이 마을 청년들과 협의해 4월 5일 서정리 장날에 있었다. 이들이 시장에서 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이 제지했다. 재차 시장으로 진입하며 독립만세를 부르자, 헌병들이 30명을 체포해 주재소에 구금했다. 만세 군중들이 구금자들을 구출하려는 과정에서 헌병의 발포로 권흥규(權興圭)가 순국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날 화성 산정리에서 박공삼(朴公三) 등이 정자동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큰 종을 치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청양 읍내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4월 6일에는 정산 헌병들에게 권흥규의 시신을 인계 받아 목면 안심리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지곡리와 안심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광생리 등 3개 마을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화성에서는 박공삼이 면사무소에 가서 신축 중인 공사를 파괴하기도 했다. 운곡에서는 신대리를 중심으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4월 7일에도 정산 면내와 화성 농암리에서 주민들이 만세를 고창했다. 4월 8일에는 비봉 신원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적곡 낙지리에서 김사길(金士吉)이 만세를 부르고 동행인 박용만(朴容萬)에 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했다. 화성에서는 강학남(姜學南)이 독립만세를 권유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목면 안심리에서는 독립만세를 부르려다가 헌병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비봉 강정리에서 김현규(金顯奎)의 주도로 마을 주민들이 산 위에 올라가 만세를 고창했다.

한편 4월 6일 운곡 신대리를 중심으로 면내 마을 주민들 600명이 횃불독립만세를 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월 7일에는 정산 와촌리 등 3개 마을 주민들이, 사양에서는 한도수(韓道洙) 주도로 면민들이, 청장(청남) 지곡리에서는 이동명(李東明), 윤병환(尹炳環) 주도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8일에는 비봉 강정리에서 유남식(劉南植), 유천식(兪天植) 주도로 주민들이, 운곡에서 비봉과 운곡 면민들이 합세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다.

(7) 부여

부여의 3·1독립운동은 3월 2일 오후 9시 논산의 김태호가 부여 천도교 교구실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독립선언서를 받은 인사들은 부여, 규암, 임천, 은산, 석성, 초촌 등의 마을의 길가나 천도교 교도들에게 배포하거나 교부했다. 이범인(李範仁)은 2매를 수령해 1매를 동생 이범석(李範石)에게 교부해 은산 시장의 김팔만(金八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3월 6일 임천 읍내에서 박용화(朴容和), 박성요(朴性堯) 등의 주도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충화 박용화 집에 모여 임천 읍내로 나가 각처에 독립선언서를 붙이고 독립 연설을 하며 읍민들과 함께 독립만세 외쳤다. 이어 구교리 면사무소아 공립보통학교로 이동하며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박용화 등 천도교 교도 7명은 헌병주재소로 가서 '경성은 이미 독립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도 독립의 권리를 부여하라'며 헌병들에게 한국 독립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3월 7일에는 부여 읍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읍내를 활보하다가 일경의 제지로 한 대열은 고란사 방면으로 다른 야소교 신자들 중심의 대열은 규암리 방면으로 이동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4월 1일에는 은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은산헌병주재소 헌병들에게 사전에 탄압을 받았다.

또한 4월 7일에는 홍산에서 면민들이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8) 논산

논산의 3·1독립운동은 3월 2일 오후 6시 민영순이 옥정 천도교 교구실로 독립선언서 2묶음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김태호가 한 묶음을 갖고 부여 출발한 후 다음날 3월 3일 새벽에 이백순은 나머지 한 묶음을 갖고 교구실을 나와 읍내 각처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첫 독립만세운동은 3월 5일 익산 대봉리에서 강금옥(姜金玉)에게 독립만세를 권유받은 엄창섭(嚴昌燮)이 동지를 규합하고 태극기 200기를 제작해 3월 10일 강경 옥녀봉에서 300여 명의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어 만세 군중들은 강경 옷시장과 읍내 일대를 활보했다. 이어 3월 11일에는 독립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심대(決心隊)를 조직했으나 일경들에게 적발되어 주도 인사들이 검거당했다. 3월 12일에는 손필규(孫弼奎), 염중오(廉衆五) 등의 주동학생 100여 명과 강경 주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논산 읍내로 진입해 읍내 주민들과 합세하여 1,000여 명이 만세를 고창했다. 3월 14일에는 연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다가 일경에게 사전에 주도 인사들이 검거를 당했다. 3월 15일에는 강경 장날에 독립만세를 부르려고 했으나 강경찰서 일경들이 출동해 구한국기 55기를 압수하며 경계 활동을 강화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그러나 3월 20일에는 송재기(宋在紀), 이근석(李根奭) 등의 주도로 제2차로 강경 옥녀봉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읍내로 이동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경과 일본인에 의해 영국 선교사 구타 사건도 발생했다. 3월 28일에도 강경에서 독립만세가 있었다. 또한 문상희(文商羲)는 3월 25일 이후 「경고문」, 「철전문제」를 작성해 3월 27일 밤에 중정에 약 5~60호에 배포하여 3월 28일에 발견됐다. 또 3월 말경 성석기(成錫驥)에게도 의뢰해 배포한 결과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300호의 한국인 상점이 철시했다. 3월 30일에는 강경 금강변에서 솔잎에 불을 놓은 방화 사건도 있었다. 3월 31일에는 양촌 신암리 이완규 등 4명이 연산 시장에서 군중들에게 만세를 권유하고 독립만세를 외쳐 일경에게 체포돼 강경경찰서에 구

금됐다. 이날 논산에서도 100명의 군중이 만세를 외쳤다고 전해진다. 3월 중 경남 합천 삼가의 허녕(許寧)이 국장 참례 후 귀가하던 중에 두만 신도안에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실태 등 10개 항목을 제시한 격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4월 1일에는 강경 읍내에서 일본인 상점에 석유를 뿌려 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 1,0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두마에서는 오후 4시경 두계 시장에서 약 100명의 군중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배영직(裴榮直)이 체포하려는 일경 2명을 응징했다. 이어 오후 7시경 장터 길가에서 1,0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만세를 외치고 일부 군중들은 호남선 철도 선로에 목침 3개를 횡대로 놓아 기차를 탈선시키려고 시도했다. 4월 2일에는 논산에서 6~7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3일에는 광석 천동리에서 200명의 주민들이 나팔을 불고 막대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고 노성 읍내리에서는 2,000명의 면민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논산 옥정 등 읍내에서는 600명 이상의 군중들이 만세를 불렀고 상점들이 철시했으며 취암리 주민 300명도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4일에는 강경 읍내 시장에서 오후 5시경 수천 명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불러 읍내 일대는 대혼잡을 이뤘다. 이어 4월 5일에는 군수가 시장 폐지령을 내려 군내 5개 시장이 철시를 당했다. 4월 6일에는 두마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7일 강경에서는 연일 시장을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므로 군청, 경찰서, 수비대가 협의해 군청과 면사무소 직원, 일경 등이 시장에 오는 지역민들을 검문 검색했다. 이에 지역민들은 읍내 부근 산 위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불렀다. 또한 논산과 연산에서도 각각 100명, 수백명씩 집합해 만세를 외쳤다. 4월 12일에는 벌곡 한삼천리 동북방 고지 솔밭에서 주민 3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4월 중 광석 왕전리의 임노현 등 10명이 독립만세를 외쳐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를 당했다.

한편 4월 1일 은진에서는 면민들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쳐 전북 익산 방면으로 독립만세운동을 하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논산 취암리 주민들이 모정산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3일에는 논산 부근 일대에서 오후 8시경 군민들이 산 위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쳐 참가 인원이 수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4월 중 가야곡 두월리 금성산에서 진학봉(陳學奉)이 주민 약 30명, 이근석의 주도로 윤병삼(尹炳三) 등이 심암리와 화정리 주민 약 70명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9) 서산

서산의 3·1독립운동은 3월 16일 일요일 야소교 예배와 천도교 시일예식을 마친 후 교도들이 연합해 서산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이어 3월 19일에도 독립만세를 외치려 했으나 서산경찰서 일경들에 의해 사전에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해미에서는 남상철(南相喆)의 주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21일에는 태안면에서 산간 지대와 해안 지대의 마을에서 천도교와 야소교에서 배부한 독립선언서가 읽고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3월 27일에는 서산 읍내에서 장날 수많은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4일 대호지면에서는 송재만(宋在萬) 등이 면장 이인정(李寅正)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고 한운석(韓雲錫)의 애국가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해 면사무소에 400여 명의 면민들이 집합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정미면 천의로 이동했다. 만세 행진 중 지역민들이 합세해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천의 시장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천의주재소 일경들이 진압하는 과정에 총기를 발포해 만세 군중들은 주재소를 공격 파괴하고 이어 일경과 일본인을 구타하며 총기들을 탈취했다. 이어 4월 8일에는 대호지 송전리와 조금리에서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이어갔다. 성연 갈

현리에서는 김옥제(金玉濟)가 주도해 주민들과 상왕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외쳤고, 정미 신시리와 운산 수평리에서 각각 300명의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3월 24일에는 해미에서 이계성(李啓聖), 김관룡(金寬龍) 등의 주도로 동지들을 규합하고 독립만세를 준비해 오후 11시경 해미공립보통학교 재학생, 졸업생, 야소교 신자 및 읍내 주민들이 읍내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읍내로 내려와 읍성 남문과 서문을 지나 면사무소와 우(牛) 시장에서도 만세를 고창했다. 이어 3월 31일에는 팔봉면에서 오후 9시경 면민들이 산 위에서는 횃불, 해안 지대에서는 등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5일 운산 고산리에서 오인탁(吳仁鐸), 4월 8일 운산 용현리에서 이봉하(李奉夏), 음암 율목리에서 채돈묵(蔡敦默, 致雲)이 주도하여 주민들과 마을 산에서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4월 8일에는 여미리와 수당리 주민들 300명이 수당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4월 10일에는 운산 갈산리와 음암 부장리에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중 안면도 고남리에서 이종헌(李鍾憲), 오몽근(吳夢根) 등이 인근 주민들에게 연락해 집합했으나 안면도경찰관주재소 일경들에게 제지됐다. 또한 지곡에서는 최정운, 최금순, 최학순 등이 천도교들과 함께 부성산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10) 당진

당진의 3·1독립운동은 3월 10일 당진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했으나 당진경찰서 일경들에 의해 사전에 제지됐다. 하지만 면천에서는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 원용은(元容殷), 박창신(朴昌信) 등의 준비와 주도로 전교생 130~200명이 성상리 보통학교 앞과 면천경찰관주재소에 이르는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16일에도 당진 읍내에서는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했으나 사전에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4월 2일에는 당진에서 다수가 독립만세를 외쳤고 합덕 범근시에서 다수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5일에는 송악 틀무시(기지시리)에서 수백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6일에는 송악 틀무시, 합덕 범근에서, 4월 8일 송악 틀무시에서 각각 독립만세를 외치려 했으나 주재소 일경들에 의해 사전에 탐지돼 탄압을 받았다. 4월 13일에는 송악면사무소를 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탐지한 일경들이 주도 인사 8명을 체포해 당진경찰서로 압송했다.

한편 4월 2일부터 합덕, 면천 2개 면에서 매일 밤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만세를 외쳤다. 이어 4월 3일에는 면천, 순성 면내 각 마을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4월 4일에는 면천 면내 8개 마을에서, 순성 면내 10개 마을에서 각각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5일에는 당진, 면천, 순성, 송악 면내에서 면민들이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11) 보령

보령의 3·1독립운동은 4월 3일 오후 2시 대천에서 수백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장의 점포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총출동해서 만세 군중들을 진압했다. 이보다 앞서 3월 10일경 김사구(金思九)와 강영국(姜永國)은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협의하고 4월 10일 ‘꽃놀이’를 명목으로 동지들을 규합해 실행에 옮기고자 했다. 4월 10일 신태중(申泰重) 집에서 회합을 갖고 최종 협의를 했으나 참석자들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1달 동안의 노력에도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4월 13일에는 주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시도가 사전에 일경에게 제압됐

다. 그러나 4월 17일 주산에서 배재학당 학생 이종연(李鍾淵, 哲源)이 귀향해 동지 5명을 규합해 증산리 등 3개소(를 아울러는) 산(주령산) 위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19일에도 주산 간치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다가 일경들에게 사전에 탄압을 받았다. 또한 청소의 이모, 웅천의 김모, 광천의 4~5명이 회합을 갖고 독립만세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일경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체포를 당해 보령경찰서에 취조를 받았다.⁹⁾

(12) 서천

서천의 3·1독립운동은 3월 초 조남명(趙南明)의 활동으로 시작됐다. 그는 3월 4일 유재경(劉載璟)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보고 3월 6일 이근호(李根浩, 建浩) 등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고 다음날 3월 7일에도 이경옥(李敬旭, 敬玉) 등에게 권유했다. 이들은 화산리에서 군산으로 가던 중 일경의 경계와 감시가 심해 중지했다. 일경에게 활동이 탐지돼 3월 8일 체포된 조남명은 화양 금당리에서 서천경찰서로 압송되던 중 서천 삼산리 장하영(張河榮) 집 앞에 이르러 주민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대한국만세’를 외쳤다. 이후 20여일 동안 서천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지 않았다. 3월 29일 마산 신장리 마산 시장에서 야소교 신자 송기면(宋箕勉), 송여직(宋汝直) 형제 등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송기면은 3월 중순 이근호, 유성렬(劉性烈) 등과 회합을 갖고 3월 23~7일 사이에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3월 28일 동지들과 독립만세운동 실행을 결의했다. 3월 29일 오전 11시경 송기면 등이 태극기를 시장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송기면과 유성렬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일경들이 출동해 주도 인사들을 체포해 경찰관출장소로 연행했다. 이어 주도 인사들이 2,000여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구금자 구출을 시도하고 주재소를 공격 파괴했다. 이어 3월 30일에는 서천 재상리에서 2,00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재상리(在上里)는 오기로 종천 화산리(花山里)로 보인다.¹⁰⁾

(13) 대전(대전광역시)

대전의 3·1독립운동은 3월 3일 인동 나무장터에서 나무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東京朝日新聞』의 경성 특파원 3월 3일자 전보로 ‘대전 등지에서 폭민이 봉기하여 와석(瓦石)을 던지는 소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12일에 ‘시일(市日)을 기해 운동을 개시하려고 기도한 것을 발견하고 수모자(首謀者)를 검거해 소요를 방지했다’고 한다. 3월 16일에는 유성 유성 시장에서 이권수(李權秀), 이상수(李祥秀) 주도로 태극기를 흔들며 약 200여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10여 일 후인 3월 27일에는 대전 인동 시장에서 김창규(金昌奎), 조상련(曹相連) 등 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 등 유인물을 군중들에게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유인물은 휘문의숙 재학생인 산내의 김정철(金正哲)이 면사무소에서 등사 인쇄한 독립선언서, 국민회보, 독립신문 등 300매를 김창규에게 전달한 것이다. 3월 28일에는 유천 면사무소에서 약 30 여명의 군중들이 가서 회의에 참석한 면장과 구장들에게 만세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대전에서 오후부터 다시 독립만세를 외쳐 주도 인사들 3, 4명이 체포됐다고 전해진다. 3월 31일에는 유성에서 약 2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들의 공포탄 발사에 돌을 던지며 맞섰다.

9) 『매일신보』 1919년4월15일자 3면6단, 「충청남도-保寧-쥬모자를 검거」.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제3권(3·1운동사(하)), 1971. 131쪽.

4월 1일에는 대전 인동 시장에서 김직원(金直源), 박종병(朴宗秉)의 주도로 태극기를 흔들며 약 400여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유성에서 약 100명의 군중들이 낮과 가래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유성헌병주재소로 행진했다. 또한 치마(馳馬)에서 약 3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회덕에서는 오후 8시경 마을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회덕역에 집합해 오후 12시경 헌병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산내 낭월리에서 약 400명의 면민들이 만세 행진을 전개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3월 25일 동면 세천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오후 10시까지 등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3월 29일에는 기성 가수원리에서 주민 약 400여 명이 부근 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14) 연기(세종특별자치시)

연기의 3·1독립운동은 3월 13일 전의 읍내리 시장에서 이수옥(李秀旭) 등의 신정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됐다. 이수옥은 국장 참례로 상경했다가 3월 6일 귀가해 마을 청년들을 규합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들이 시장에서 태극기를 배포하고 이수옥이 독립 연설하여 약 150여 명의 군중들이 시장에서 만세를 외치고 읍내 일대를 활보했다. 이어 3월 15일에 전동에서 수백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28일에는 북면 조치원리에서 오후 8시 구시장 후리에서 20명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30일에는 조치원 시장에서 홍일섭(洪日燮)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쳐 시장 군중 250명도 호응했다. 또한 서면 내창리에서도 5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31일에는 남면 신대리, 전의 소정리에서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4월 1일에는 금남 대평리에서, 서면 와촌리에서 주민들이 만세를 고창했다. 4월 2일에도 금남 대평리 시장에서는 임헌규(林憲奎)의 주도로 여러 인사들이 시장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3일에는 남면 연기리에서 100 여명의 군중들이 합세해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4월 20일에도 연기리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만세를 외쳤다. 다음날인 4월 21일에는 전의 유천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다가 사전에 탐지돼 탄압을 받았다.

한편 3월 23일 북, 서, 남면에서 대규모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이는 충북 청주 강내면 등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 군중들이 연기로 이동해 와서 조치원 등 연기 군내 북면, 서면, 남면 일대의 면민들이 호응해 횃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다. 3월 26일에는 동면 응암리 주민들이 고목동 뒷산에서 청주 강내면 사곡리 주민들과 연합해 횃불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북면에서도 오후 8시에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3월 27일에는 동면 예양리, 노송리, 송룡리 등 3개 마을의 6개소에서 횃불독립만세를 불렀다. 특히 예양리에서는 구장 장재기(張在基)가 주도했다. 노송리와 송룡리 주민들은 강내 면민과 연합했다. 3월 28일에도 송룡리에서는 장홍진(張弘鎭), 장기민(張基民) 등이 주민 10명과 함께 마을 산에 올라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면사무소에서 군수의 설유에 ‘한국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변하고 귀가해 주민들과 독립운동을 했다. 3월 29일에는 조치원리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전동 청송리에서 권혁기(權赫基)가 마을 주민 약 20명과 내동산에서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3월 30일에는 서면 기룡리에서 유진광(俞鎭廣)의 주도로 다수의 주민들이 동참해 횃불독립만세를 불렀다. 또한 오후 2시 조치원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밤에는 면내 각 마을에서 산 위에 오른 주민들이 횃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3월 31일에는 남면 방축리 황우산에서 임헌상(林憲祥), 보통리에서 박원칠(朴元七), 양화리, 진의리, 송담리에서 김봉식(金鳳植) 등의 주도로 마을들

을 이동하며 마을 주민들이 합세하여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북면의 각 마을도 30일에 이어 31일에도 햇불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1일에도 남면 갈운리 황우산에서 유시풍(柳時豐), 송담리 서운산에서 임희수(林喜洙) 등이 주도해 주민들이 햇불을 올리고 만세를 고창했다. 이외 남면 월산리, 전의와 전동의 각 마을에서 주민들을 햇불을 쥘피고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금남 부용리에서 밤마다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조치원의 김재형(金在衡)은 국장 참례로 상경했다가 박동완(朴東完)에게 경고문 500매를 받아 귀가해 보관해 두었다. 그는 3월 23일 이후 연일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으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25일 청주 문의, 이원, 보은 등에 350매를 발송하고 나머지 150매를 강내의 조동식, 김봉회(金鳳會), 박준평(朴準平)에게 각각 배포했다. 이외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경에 협조해 참가자들의 검거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보조원 이철휴(李哲體, 哲休)을 응징하려 했다. 4월 17일에 그의 집을 불태우기 위해 울타리에 방화하는 활동이 있었다.

2) 전개 양상

이상의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전개를 지역별 전개 양상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지역에서는 3월 14일 유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5일 반포 상신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23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31회, 햇불독립만세운동 14회, 합계 45곳에서 45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0,300명(최소치) ~ 11,500명(최대치)이 참가했다.¹¹⁾ 독립선언서가 제작 배포한 독립만세운동은 4월 1일 공주이었다. 태극기(구한국기)를 사용한 독립만세운동은 4월 1일 공주와 정안, 4월 3일 계룡의 3회이었다. 공격적 독립만세운동으로 유구와 정안 주재소를 공격 파괴했다. 4월 1일 공주 독립만세운동 때부터 공주 시장은 철시했다.

천안지역에서는 3월 14일 목천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1일 직산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19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1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2회, 합계 36곳에서 33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2,270명(최소치) ~ 15,370명(최대치)이 참가했다. 태극기(구한국기)를 사용한 독립만세운동은 3월 20일과 28일 입장 양대리, 4월 1일 병천의 3회이었다. 일제 통신에 장애를 가하고자 군내 전화선에 돌을 달기도 하고 3월 28일 입장 양대리에서 전선을 절단하기도 했으며 4월 1일 병천 우편소를 공격해 파괴하기도 했다.

아산지역에서는 3월 11일 아산 온양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4일 선장 군덕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25일동안에 독립만세운동 7회, 햇불독립만세운동 85회, 합계 95곳에서 92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3,889명(최소치) ~ 4,204명(최대치)이 참가했다. 독립운동 초기에는 온양과 영인(구 아산)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하거나 적극적 참가가 있었다. 3월 31일부터 전개된 독립운동은 햇불독립만세운동 형태로 3월 31일 4개 면의 50곳 이상에서 전개됐고 4월 1일부터는 12개 면의 면내 각처에서 햇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31일 이화학당 학생 김복희와 여교사 한연순의 주도로 염치 백암리에서 햇불독립만세가 있었고, 4월 1일 둔포 운룡리에서는 일본인 광혈 20개 곳을 파괴하는 독립운동이 있었다. 3월 18일에는 박민성이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11) 장소와 횃수를 1곳 1회로 통계 처리한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도 인사나 군중이 한 곳에서 전개한 경우, 주도 인사나 군중이 여러 장소를 이동해서 전개한 경우, 일자(언제부터, 언제까지)와 장소(군내, 면내, 각 마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1곳 1회로 추계했다. 그러나 주도 인사나 참가자가 추가되거나 더욱이 장소나 시간이 다를 경우는 장소와 횃수를 더하여 추계했다.

독립만세를 권유하기도 했다.

예산지역에서는 3월 3일 예산 예산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6일 선장 군덕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35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1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8회, 합계 39곳에서 39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5,055명(최소치) ~ 17,985명(최대치)이 참가했다. 1달 후인 5월 8일에는 4월 4일 신양 연리에서 햇불독립만세를 주도한 성원수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헌병 보조원을 공격하는 하기도 했다. 4월 4일 대술 산정리의 민제식은 구한국기를 산 위에 세워 놓고 주민들과 독립만세를 외쳤다. 예산에서는 3월 9일과 21일 2회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이 일경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탄압을 받기도 했다. 4월 3일 예산. 대술, 신암, 신양 4개 면내 각 마을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고 이어 다음날인 4월 4일에는 군내 각 마을의 18개소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으며 참가 인원이 8,000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광시의 하장대리에서는 4월 4일 독립만세를 전개하고 오후 8시부터 면민들이 햇불독립만세를 전개했으며 다음날인 4월 5일 오전 3시에는 4,000명이 광시리 면사무소로 공격했다. 이어 낮에는 하장대리에서 40명, 250명이 2회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홍성지역에서는 3월 7일 홍성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9일 은하 장곡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34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0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7회, 합계 38곳에서 37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940명(최소치) ~ 1,040명(최대치)이 참가했다.¹²⁾ 독립운동 초기에 광천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보고 이명종과 박원식이 2회에 걸쳐 유인물을 작성하거나 복사해서 배포했다. 4월 4일 첫 햇불독립만세운동 때 금마, 홍동, 장곡, 구항 4개면 면내 20~4개 곳에서 햇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청양지역에서는 4월 5일 정산 서정리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9일 비봉 강정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5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0회, 햇불독립만세운동 6회, 합계 18곳에서 16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4,400명(최소치) ~ 6,060명(최대치)이 참가했다. 정산 백곡리 흥범섭은 3·1독립운동이 확산될 때 상경해 독립선언문을 입수하여 귀가한 후 마을 청년들과 협의해 4월 5일 서정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 독립만세운동 때 구금자를 구출하려는 과정에서 권흥규가 헌병들에게 총격을 당해 순국하므로 4월 6일 그의 시신을 운구하는 과정에 목면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어 사상자가 발생했고 광생리 등 주민들도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4월 5일 화성 산정리의 박공삼은 쇠북을 쳐 주민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어 4월 6일에는 면사무소 증축 공사장에 나가 증축 시설을 파괴했다. 4월 8일 운곡에서는 운곡과 비봉 면민들이 합세해 연합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부여지역에서는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3월 7일 부여와 홍산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 까지 6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2회, 햇불독립만세운동 1회, 합계 7곳에서 3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5명(최소치) ~ 18명(최대치)이 참가했다.¹³⁾ 3월 3일 독립선언서가 부여 읍내와 군내 면의 천도교 신도나 거리에 배부되고 배포되었으나 독립만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독립선언서 수령과 배포와 관련했던 인사들이 3월 6일 임천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에 가서 독립을 인정

12) 홍성지역의 참가 인원이 1,000여 명 정도로 추계되는 것은 3월 7일 홍성 시장에서 '군중', 3월 21일 광천 시장에서 '수백명', 4월 1일 금마에서 '수백명', 4월 4일 4개면 20~24개소와 4월 8일 홍동에서 참가 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월 4일 금마에서 500명이라고만 기록돼 있다. 군중과 수백명(2곳), 미기재(홍동)을 2~300을 기준으로 4곳의 800~1,200명, 금마면 500명을 기준으로 4개면의 1,500명(금마면 500명은 포함됨)으로 추정해 보면, 홍성지역의 참가 인원은 940 ~ 1,040명을 더하여 3,240 ~ 3,740명으로 추계할 수 있다.

13) 부여지역의 참가 인원이 15 ~ 18명 정도로 추계되는 것은 3회의 독립만세운동으로 그 횟수가 적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그나마도 참가 인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월 6일 임천의 독립만세운동에 주도 인사들 인원 정도만 있을 뿐 참가 인원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3월 7일 부여 읍내와 홍산의 독립만세운동은 주도 인사들 인원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에는 4회에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라는 주장했다. 3월 7일 홍산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논산지역에서는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4월 12일 벌곡 한삼천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39일동안에 독립만세운동 20회, 햇불독립만세운동 5회, 합계 27곳에서 25회의 독립운동에 연 인원 7,470명(최소치) ~ 10,470명(최대치)이 참가했다. 3월 2일 독립선언서를 받아 3월 3일 논산 읍내 각처에 배포되었으나 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극기(구한국기)를 사용한 독립만세운동은 3월 10일과 20일 강경, 3월 12일과 4월 3일 논산, 4월 1일 두계, 4월 3일 노성의 5회 이었다. 3월 11일에는 결심대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으나 일경에 탐지돼 주도 인사들이 체포를 당했다. 4월 1일 두마에서는 시장에 만세를 외치고 밤에는 호남선 철도에 목재를 놓아 기차를 탈선시키려 했다. 4월 3일 논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오후 8시에는 논산을 중심으로 부근 산 위에서 햇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그 참가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있다.¹⁴⁾ 4월 7일 강경에서 독립만세를 제지하려고 일제가 시장에 오는 지역민들에게 검문을 강화하자, 지역민들은 밤에 읍내 부근 각처의 산에서 햇불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 은진, 가야곡, 채운에서도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3월 28일부터 문상희가 주도해 경고와 철전문제 유인물이 배포되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강경에서는 상인들이 철시를 단행했고 4월 1일에는 일본인 상점에 방화가 시도했다.

서산지역에서는 3월 16일 서산 읍내에서 천도교 교도와 야소교 신자들의 연합으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10일 운산 갈산리와 음암 부장리에서 만세를 부르기까지 26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2회, 햇불독립만세운동 9회, 합계 26곳에서 21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935명(최소치) ~ 2,715명(최대치)이 참가했다. 3월 21일 태안에서는 야소교와 천도교에서 배부한 독립선언서를 읽은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24일 해미에서 김관룡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4일에는 대호지면에서 시작하여 정미면까지 이동해 전개하는 원정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8일과 10일 양일에는 운산면과 음암면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당진지역에서는 3월 10일 면천 성상리에서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5일 당진, 면천, 순성, 송악 면내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까지 27일동안에 독립만세운동 4회, 햇불독립만세운동 34회, 합계 38곳에서 38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30명 정도가 참가했다.¹⁵⁾ 4월 2일 면천, 합덕, 4월 3일 순성, 4월 4일 면천, 순성, 4월 5일 당진, 면천, 순성, 송악 면내 각 마을에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즉 4월 2일부터 5일까지 당진 군내에서는 활발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4월 6일 송악, 합덕, 4월 8일 송악에서는 일경들의 경계 강화로 독립운동이 사전에 탐지되어 탄압을 받아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4월 13일에는 송악에서 면사무소를 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보령지역에서는 4월 3일 대천에서 수백 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헌병주재소를 공격하고 4월 17일 보령 주산에서 이종연 등 주도 인사 5명이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10일경 이후 1개월간에 걸쳐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김사구와 강영국의 노력은 참가자의 미온적 태도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외 4월 13일 주포, 4월 19일 주산 간치, 4

14) 『매일신보』 1919년4월10일자 3면5단, 「충청남도-論山-지사자 일명」.

15) 서산지역의 참가 인원이 130명 정도로 추계되는 것은 4월 2일 면천, 합덕의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수백명’, 4월 5일 송악 틀무시에 ‘수백명’, 4월 3일 순성 10개 마을, 4월 4일 면천 8개 마을과 순성 10개 마을, 4월 5일 당진, 면천, 순성, 송악 4개 면의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 인원이 ‘미기재’되었기 때문이다. 홍성지역의 예와 같이 수백 명을 2~300명으로 하면 2개 지역으로 400~600명, 1개 마을을 50명으로 28개 마을의 1,400명, 면 단위를 500명(홍성지역의 사례를 적용)으로 4개 면의 2,000명으로 추정해 보면, 서산지역의 참가인원은 130명을 더하면 3,930~4,130명으로 추계할 수 있다.

월 중 보령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탐지되어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서천지역에서는 3월 8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된 조남명이 서천 삼삼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29일 마산 신장리 마산 시장에서 야소교 신자들의 주도로 2,000명이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주도 인사를 체포 구금함으로 경찰관출장소를 공격 파괴했다. 이어 3월 30일 종천 재상리(? 화산리)에서 2,000명의 군중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대전지역에서는 3월 3일 대전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해 4월 1일 대전, 서대전, 회덕, 산내 낭월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30일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2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회, 합계 14곳에서 14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1,530명(최소치) ~ 5,540명(최대치)이 참가했다. 태극기(구한국기)를 사용한 독립만세운동은 3월 16일 유성, 3월 27일과 4월 1일 대전 인동 시장의 3회이었다. 김정철은 독립선언서, 국민회보, 독립신문 등 300매를 등사 인쇄해 김창규에게 전달해 3월 27일 인동 시장 군중들에게 배포되고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3월 28일 유천에서 면장과 구장을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고 사직을 요구하며 구타까지 했다. 4월 1일 유성 시장에서는 군중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주재소를 공격했다. 또한 4월 1일은 대전 인동 시장, 산내 낭월리, 치마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유성에서는 헌병주재소를 공격하는 등 대전에서 가장 활발히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날이었다. 3월 25일 동면 세천리에서 주민들이 야간에 등불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29일 기성 가수원리에서는 400명의 주민들이 산 위에서 만세를 부르고 햇불을 올렸다.

연기지역에서는 3월 13일 전의 읍내리 시장에서 외치기 시작해 4월 20일 남면 연기리에서 만세를 부르기 까지 39일 동안에 독립만세운동 12회, 햇불독립만세운동 35회, 합계 47곳에서 47회의 독립운동에 연인원 7,036명(최소치) ~ 9,936명(최대치)이 참가했다. 태극기(구한국기)를 사용한 독립만세운동은 3월 13일 전의, 3월 15일 전동, 3월 30일 조치원 시장의 3회이었다. 3월 13일 전의와 3월 15일 전동의 독립만세운동이 있던 지 1주일 후인 3월 23일부터 연기에서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특히 햇불독립만세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됐다. 3월 23일 충북 청주 강내면 민들의 연기 조치원으로 이동에 호응해 전개된 햇불독립만세운동은 북면, 서면, 남면 3개 면내 10여개의 마을에서 전개됐고, 3월 26일 동면, 북면, 3월 27일 동면의 3개 마을, 3월 28일 동면, 3월 29일 북면, 전동, 3월 30일 서면, 북면 각 마을, 3월 31일 남면 5개 마을, 북면 10개 마을, 4월 1일 남면 2개 마을 등에서 주민들이나 인접 지역 주민들과 연합해 마을 주위 산에 올라 햇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¹⁶⁾

이상의 독립운동에서 독립만세운동 및 햇불독립만세운동 전개지로 산 77개소, 마을 60개소, 시장 40개소, 읍내 19개소, 읍내 19개소, 주재소 6개소, 면사무소 5개소, 학교 3개소, 냇가 1개소, 역 1개소, 철로 1개소, 해안 1개소 등 214개 장소의 437곳에서 독립만세운동 146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68회, 합계 414회에 걸쳐 연인원 67,179명(최소) ~ 88,977명(최대치)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¹⁷⁾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16) 이외에도 3월 31일 논산, 3월 12일 대전 인동, 3월 14일와 16일 대전, 4월 8일 천안 입장, 4월 4일 홍성 장곡, 4월 7일 홍성 읍내의 독립만세운동, 4월 중 대전의 햇불독립만세운동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17)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 충남지역 3·1독립운동으로 공주 16건, 논산 18건, 천안 10건, 아산 11건, 예산 14건, 청양 17건, 홍성 14건, 서산 12건, 당진 9건, 부여 3건, 당진 3건, 서천 3건, 대전 10건, 연기 17건, 합계 157건이 탑재되어 있다. 1건에 2회 이상의 독립운동을, 특히 시간상 연속되어 있을 때는 주도 인사나 참여 인사가 다른 경우도 1건에 포함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표1>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전개 상황 - 횃수, 장소, 참가자

구분/ 지역	공주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	논산
횃수	45	33	92	39	37	16	3	24
장소(곳)	45	36	95	39	38	18	7	26
참가자	10,300~ 11,500	12,270~ 15,370	3,889~ 4,204	15,056~ 17,986	940~ 1,040	4,400~ 6,060	15~18	7,470~ 10,470
구분/ 지역	서산	당진	보령	서천	대전	연기	합계	
횃수	21	38	2	3	14	47	414	
장소(곳)	26	38	2	4	14	47	435	
참가자	1,935~ 2,715	130	7	2,201~ 4,001	1,530	7,036~ 9,936	67179~ 88977	

독립운동 횃수를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으로 구분해 군별의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전개 상황 - 군별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운동 횃수

군	만세	햇불	합계	군	만세	햇불	합계
공주	31	14	45	서천	3	0	3
논산	19	5	24	아산	7	85	92
당진	4	34	38	연기	12	35	47
대전	12	2	14	예산	11	28	39
보령	2	0	2	천안	11	22	33
부여	2	1	3	홍성	10	27	37
청양	10	6	16	계	54	197	251
서산	12	9	21				
계	92	71	163	합계	146	268	414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전개 상황 - 군별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운동 횟수

횟수	공주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	논산	서산	당진	보령	서천	대전	연기	횟수
만세	31														만세
25															25
20								19							20
15															15
10		11		11	10	10			12				12	12	10
5			7				2			4	2	3			5
0															0
5															5
10						6	1	5	9				2		10
15	14														15
20															20
25		22													25
30				28	27										30
35															35
40										34				35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75															75
80															80
햇불			85												햇불
합계	45	33	92	39	37	16	3	24	21	38	2	3	14	47	414

이를 일자별로 그래프로 표시하면 <부록>과 같다.

(<부록>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전개 상황 - 일자별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운동 횟수)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에 참가하지 못했던 유림들은 장서운동을 전개했다. 보령의 유준근(柳濬根), 백관형(白觀亨) 등은 국장 참례를 위해 상경했다가 3월 1일 독립선언과 독립만세를 접하게 됐다. 이날 경성에 도착한 이들은 동대문 부근 노상에서 정재호(鄭在號)를 만나 협의하고 3월 2일 수창동에서 고예진(高禮鎭) 등 유생들과 만나 상서(上書)를 올리기로 했다. 유준근 등 14명 유생들의 명의로 작성된 상서는 3월 5일 순종의 반우식(返虞式) 행차 때 전달하고자 했으나 일경의 차단으로 전달치 못하고 관련 인사들이 체포됐다. 체포되지 않은 유준근 등은 문성호(文成鎬)를 만나고 3월 6일 김백원(金百源)와 회합하는 등 '선언장서(宣言長書)'를 준비했다. 이들은 문일평(文一平), 차상진(車相晉) 등과 만나 후 3월 12일에 장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장하(李章夏)가 작성한 선언장서는 3월 12일 영흥관에 모인 서명 인사(야소교, 유림 각각 6명씩 12명)들에 의해 조선총독부에 제출되고 종로 네거리 보신각에서 낭독됐다. 이는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야소교 목사와 유생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장서로소 야소교와 유림 세력의 최초 합동이었다. 한편 지방에서 장서를 준비했다. 영남지방은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곽종석(郭鍾錫) 등에 의해 추진됐다. 호서지방에서는 김복한(金福漢)이 3월 중 장서를 작성하고 과거 임한주(林翰周) 등 과거 의병 동지들에게 장서의 서명을 요청했다. 그는 임한주를 포함한 청양의 안병찬(安炳瓚), 김덕진(金德鎭), 홍성의 최중식(崔中植), 전양진(田穰鎭), 이길성(李吉性), 서산의 김상무(金商武), 김봉제(金鳳濟), 보령의 유준근(柳濬根), 신직선(申稷善) 등 1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 장서는 김복한의 문인인 경성의 임경호(林敬鎬)에게 전달되어 파리로 발송하려던 중에 김창숙을 만나 협의해 영남지방에서 작성된 장서를 채택하고 서명자로 137명을 선정했다. 이에 호서지방 인사는 17명으로 전술한 인사 외에 홍성의 전석운(全錫允), 보령의 백관형, 김병식(金炳軾), 김지정(金智貞), 논산의 이내수(李內修), 부여의 김학진(金鶴鎭) 등이다.¹⁸⁾ 파리장서는 김창숙에 의해 상해에서 관련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번안되거나 인쇄되어 해외와 국내로 발송됐다.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전개는 독립만세운동, 햇불독립만세운동, 장서운동 이외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즉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으로 활동을 했다. 우선 독립선언서 배포와 관련해, 3월 2일 논산 천도교구실에서 김태호와 이백순이 독립선언서를 받아 김태호가 부여로 전달했고, 부여의 천도교 교도들이 3월 3일 부내 군내의 천도교 교도와 각지에 교부하거나 배포했다. 이들은 함께 3월 6일 부여 임천의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 병합 재판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백순도 3월 3일 논산 읍내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이범인(李範仁)은 김태호에게 독립선언서를 받아 동생 이범석(李範石)을 시켜 은산 시장의 김팔만(金八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가 태형을 당했다.

격문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3월 8일과 18일에 홍성 광천에서 이명종과 박원식의 주도로 2회에 걸쳐 독립선언서에 근거한 격문을 부착하거나 민가에 배포했다. 또한 3월 27일 논산 강경의 문상희는 ‘경고’와 ‘철전문제’를 작성해 3월 28일과 이후 성석기와 함께 배포해 3월 31일부터 강경 시장의 철시를 이끌었다. 그리고 3월 중 국장 참례 후 경남 합천 삼가면으로 귀가하던 허녕(許寧)이 논산 신도안에 일제의 침략과 탄압상 등을 기재한 격문을 부착했다.

독립만세 권유 활동으로 3월 10일 공주에서 박장래가 영명학교 학생 안기상(安期商)과 졸업생 신의득(申義得)에게 경성의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만세를 권유했고, 3월 18일 아산 신장에서 박민성(朴敏成)은 조명원(趙溟元), 이상균(李祥均) 및 신창공립보통학교 학생 김안기(金安基)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했다. 또한 4월 6일 홍성 홍북에서 박성식(朴性植)은 김헌식(金憲拭)에게 ‘흑립(黑笠)’을 쓰고 다니느냐며 따지고 ‘어찌하여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무례한 자식이다’고 호통을 치며 흑립을 망가뜨리고 목덕미를 잡고 주먹으로 뺨을 가격한 사례도 있었다. 4월 8일에는 청양 화성에서 강학남(姜學男)은 이병규(李炳圭), 김학성(金學成)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찢고 머리를 잡고 가격한 사례도 있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도에 일제는 사전에 탐지하고 진압하기도 했다. 공주에서는 3월 7일 오후 7시 공주 애산 공원에 150명이 집합했다가 일경에게 강제로 해산을 당했고, 보령에서는 3월 10일경부터 김사구와 강영국이 회합을 갖고 동지를 규합해 진두산에서 햇불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했으나 회합 참석자들의 미온적 태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4월 12일에 체포를 당했으며, 서산에서는 4월 중 안면도 고남리에서 이종헌, 오몽근 등의 주도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시도하다가 사전에 탐지되어 진압됐다. 또한 공주에서는 3월 12일 공주에서 주도자가 체포되고, 논산에서는 3월 14일 연산에서 주도자 체포된 이어 3월 15일 강경에서 구한국기 55기를 압수당했다. 예산에서는 3월 9일 예산리에서, 당진에서는 3월 10일과 16일 읍내리에서, 4월 6일 송악 기지시리와 합덕 범근(운산리)에서, 서산에서는 3월 19일 읍내에서, 부여에서는 4월 1일 은산에서, 청양

18) 호서지방의 파리장서와 관련해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김상기,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 『대동문화연구』제39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1 ; 「호서지역 파리장서 참여자와 ‘호서본’의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제7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15 ; 황의천, 「파리장서운동과 보령·호서지역 유림」, 『보령문화』17, 보령문화연구회, 2008 ; 서동일, 『1919년 파리장서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진호, 「보령지역 3·1운동과 장서운동」, 『충청문화연구』제15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5.

에서는 4월 3일 운곡 미량리에서, 4월 8일 목면 안심리에서, 홍성에서는 4월 5일 광천리에서, 연기에서는 4월 21일 전의 유천리에서 각각 사전 탄압을 받았다. 대전에서는 3월 12일 대전에서 주도자가 체포되고, 4월 1일 산내 낭월리에서 대전 헌병들까지 출동해 사전 탄압을 받았다. 보령에서는 4월 13일 주포에서, 4월 19일 주산 간치에서 사전 탄압을 받고 또한 4월 중 청소면 이모와 웅천면 김모 및 홍성 광천에서 4~5명이 독립운동 계획으로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방화와 관련해 3월 20일 논산 강경에서 금강 연안의 소나무 잎(松葉)에 불을 놓아 일경들을 긴장시켰고, 4월 13일 당진 송악에서는 면사무소를 방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기지시경찰관주재소 일경들이 사전에 탐지하고 혐의자로 8명이 체포를 당했으며, 4월 17일 연기 남면에서 연기 독립운동 참가자 체포에 성과를 보였던 헌병 보조원 이철휴(李哲休)을 응징하기 위해 집을 불태우려고 울타리에 불을 놓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다. 3월 10일 논산 강경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이후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강경에서는 결심대(決心隊)를 조직했다. 그러나 조직체 결성을 탐지한 일경들에게 주도 인사 17명이 체포 구금을 당함으로써 활동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제에 대한 공격, 파괴 활동으로 4월 5일 청양 화성의 산정리에서 주민들과 독립만세를 외친 박공삼은 다음날 4월 6일 면사무소로 나아가 증축 공사를 하던 일부들에게 공사를 중시시키고 이미 증축 공사가 된 것을 파괴하기도 했다. 5월 8일 예산 신양의 성원수가 4월 4일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혐의로 체포하려 온 헌병 보조원 박동진(朴東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사례도 있었다. 천안 군내에서는 일제의 통신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 전화선의 양쪽 끝을 묶어 500돈중의 무게 돌을 매달아 놓은 것을 3월 16일에 발견되기도 했다.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시가에는 철시가 이루어졌다. 대전, 공주, 강경, 대천 등지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면서 시장 상인들이 상점을 닫고 철시를 했다. 대전에서 3월 27일 김창규가 주도한 독립만세운동 때 윤명화(尹明化)는 각 상점을 다니며 문을 닫도록 권유했다.¹⁹⁾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독립운동으로 전개된 대표적인 철시운동은 강경에서 있었다. 문상희(文尙羲)는 3월 25일, 26일 양일에 자택에서 ‘경고문(警告文)’을 작성해 약 100매를 인쇄하고 또한 ‘각 상점을 폐쇄할 것을 권유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인과 동일시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철전문제(綴塵問題)’를 만들어 수십 매를 출판했다. 그는 3월 27일 밤 강경 읍내 민가에 배포했다. 이어 3월 하순경 이성삼(李成三) 집에서 성석기(成錫驥)에게 배포를 의뢰하며 경고문 약 10매를 건넸다. 성석기는 6매를 시내에 배포했다. 원은상(元殷常) 논산군수는 3월 31일부터 철시가 단행되자, 4월 1일 지역 유지들을 경찰서로 조치해 설유하며 개시하도록 강요했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철시를 계속해 4월 19일에 되어서야 상점을 열기 시작했다.

이상의 활동으로 선언서 배포 4건, 격문 4회, 권유 2회, 권유와 응징 2회, 방화 3회, 사전 탄압 21회, 독립만세 시도 3회, 철시운동 1회 등 40회를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 414회와 합치면 454회가 된다. 즉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은 도민들을 450회 이상에 걸쳐 전개했다고 하겠다.

4.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19) 철시를 주장했던 윤명화는 다른 인사들의 징역 1년에서 비해 주도 인사 김창규와 함께 징역 1년6월 선고받았다.

공주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2명, 보병 43명, 일경 7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4 ~ 6명이 순국하고 4 ~ 15명이 부상을 당하고 73 ~ 132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68명이다. 3월 하순에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도장관은 '경고'를 발하고 도내 각지의 주요 지역에게 부착토록 했다. 공주 군수는 4월 6일부터 철시령을 내려 군내 8개 시장을 철시시켰으나 경찰서장의 권유로 공주 시장은 4월 6일부터 개시했다. 일제의 회유와 압력으로 정안에서는 12명이 165원을 각출해 공격당한 주재소의 복구를 시도하기도 했다.

천안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4명, 보병 40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15 ~ 21명이 순국하고²⁰⁾ 7 ~ 48명이 부상을 당하고 90 ~ 161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34명이다. 3월 29일 천안 읍내 시장에서는 독립만세에 참가 인사들에게 청색 잉크를 뿌려 진압 후에 검거하기도 했다.

아산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14명, 보병 59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1명이 순국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고 59 ~ 65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22명이다.

예산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5명, 보병 14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71명이 순국하고 4 ~ 11명이 부상을 당하고 38 ~ 71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7명이다. 3월 31일 고덕 한천 시장의 독립만세운동에 흥성 수비단서 보병 7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홍성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보병 12명, 일경 3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4 ~ 12명이 순국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고 37 ~ 41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23명이다.

청양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1명, 보병 7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5 ~ 9명이 순국하고 8 ~ 9명이 부상을 당하고 26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16명이다.

부여지역에서는 일제 헌병들에게 10 ~ 14명이 체포되고 1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논산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보병 33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5명이 순국하고 11 ~ 18명이 부상을 당하고 72 ~ 117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23명이다. 3월 15일 강경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다가 일경에게 탐지돼 구한국기 55기를 압수당하는 등 탄압이 있었다. 4월 4일 강경 읍내 독립만세운동에는 보병과 재향군인까지 동원해 진압했다. 5월 10일자 일제 측의 보고에 의하면, 노성 주재소에 상월, 노성의 2개면 100명을 조치 소환해 회유하기도 했다.

서산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보병 18명, 일경 12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7 ~ 8명이 순국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고 28 ~ 32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47명이다.²¹⁾

당진지역에서는 체포 인원이 14명으로 파악된다. 즉 4월 10일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 2명에 체포되고 4월 5일 송악 틀무시에서 4명, 4월 13일 송악에서 면사무소 방화 혐의로 8명이 검거됐

20) 『매일신보』 1919년4월1일자 3면5단, 「충청남도-天安-다섯명이 총살됨」.

이 보도에 의하면, '3월 27일 밤에 양대헌병주재소에 광부 100여 명이 몰려갔고 천안헌병분대와 수비대가 출동해 발포하여 5명을 쏘아 죽이었다'고 한다.

21) 체포 인원 보다 재판에 회부된 인사가 많은 것은 참가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색출가 검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 그러나 4월 2일 이후 5일까지 활발히 전개된 햇불독립만세운동에 참가 인사들의 검거 체포에 대한 기록 자료가 없어 일제의 탄압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보령지역에서는 독립만세를 시도했던 김사구, 강영국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서천지역에서는 3월 29일 마산 시장에서의 독립만세운동으로 2명이 부상당하고 9 ~ 19명이 체포를 당했으며 14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3월 30일 재상리 독립만세운동에 홍성에서 수비대 보병 7명이 출동해 진압 활동을 했다.

대전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17명, 보병 54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 진압으로 3 ~ 12명이 순국하고 13 ~ 19명이 부상을 당하고 65 ~ 76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13명이다. 4월 1일 대전 인동 시장과 유성 시장에서 일경과 보병들의 무력 진압으로 3 ~ 12명이 순국하고 12 ~ 15명이 부상으로 당했으며 51명이 체포를 당했다. 즉 대전지역의 무력 탄압으로 인한 살상과 체포는 4월 1일 인동과 유성 시장의 독립만세운동에서 발생했다. 3회에 걸친 유성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는 대전에서 헌병이나 보병들이 출동해 진압했다.

연기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연인원으로 헌병 5명, 보병 23명이 만세운동지로 추가 출동했다. 이들의 무력시위와 진압으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134 ~ 157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다. 구금자 가운데 재판에 회부 인사가 34명이다. 3월 30일 조치원 시장에서 250명(『매일신보』, 수천명)이 홍일섭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헌병들이 출동해 무력으로 진압해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23명이 체포됐다. 하지만 맹의섭, 변해조, 오진표 등이 헌병분대장과 앞으로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는 타협으로 주도 인사 홍일섭 1명만 재판에 회부되고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석방됐다.

이상의 일제 탄압으로 독립운동의 현장 탄압 과정이나 이후 사망 순국한 인사가 51명(최소) ~ 81명(최고)이나 되고 부상을 당한 인사가 72명(최소) ~ 145명(최고)이나 된다. 그리고 체포 구금된 인사가 658명(최소) ~ 938명(최고)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순국자, 부상자, 체포자 상황

구분/ 지역	공주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	논산
순국자	4~6	15~21	1	7	4~12	5~9	0	5
부상자	4~15	7~48	7	4~11	4	8~9	0	11~18
체포자	73~132	90~161	59~65	38~71	37~41	26	10~14	72~117
구분/ 지역	서산	당진	보령	서천	대전	연기	합계	
순국자	7~8	0	0	0	3~12	0	51~81	
부상자	12	0	0	2	13~19	수십	72~145	
체포자	28~32	14	2	10~30	65~76	134~157	658~938	

체포 구금된 인사들은 경찰서, 헌병분대나 분견소에서 심문 조사를 받고 검사국으로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됐다.

현재 검사가 정식 기소해 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문건이 143건의 판결문이 있어야 하나 지방법원 판결문 14건이 전해지지 않아 현재 129건이 남아있다.

논자가 판결문, 『매일신보』, 국가기록원의 형사사건부를 통해 지방법원(공주, 대구) 재판에 회부

되어 선고 판결을 받은 인사로 415명이 확인된다. 415명 가운데 지방법원의 선고 판결에 불복해 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183명이 경성복심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인사 96명이 상고를 제기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 통계 자료는 <표5>와 같다.

<표5>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재판 현황(국가기록원 판결문)

일자	장소	주도 인사	인원	최소형량	최고형량	경성복심	고등법원	비고
3.02.	논산	김태호, 이범인 등	3	태90	1년			
3.03.	부여	박용화, 최용철 등	12	태60	1년	7	2	별건
3.08.	서천	조남명	1		태90			
3.08.	홍성	이명종, 서승태 등	5	8월	1년6월	4	1	
3.10.	공주	박장래	1		1년6월	1	1	
3.10.	논산	엄창섭, 고상준 등	14	태90	2년	10		
3.13.	연기	이수옥, 추경춘 등	17	태90	1년6월	8	3	
3.14.	공주	황병주, 박준빈 등	23	무죄	3년	6	6	
3.16.	대전	이권수, 이상수	2		1년2월	2	2	
3.17.	공주	김희봉	1		10월	1	1	
3.18.	아산	박민성	1		태90			
3.20.	논산	송재기, 이근오 등	4	1년	1년6월	4	4	
3.20.	천안	민옥금, 한이순 등	10	6월	1년	2	2	
3.24.	서산	김관룡, 이계성 등	4	태90	1년	1	1	
3.25.	연기	김재형	1		2년	1	1	
3.27.	대전	김창규, 윤명화 등	9	1년	1년6월			별건
3.28.	논산	문상희, 성석기	2	10월	2년	1	1	별건
3.28.	연기	장기민, 장홍진	2		6월			
3.28.	천안	박창신, 한근수 등	4	10월	1년6월	1	1	
3.29.	서천	송여직, 송재기 등	13	1년	5년	10	10	별건
3.29.	서천	유일동	1		2년	1(태60)		
3.29.	연기	권혁기	1		6월			
3.29.	천안	이문현, 인시봉 등	4		1년6월	4	4	
3.30.	연기	유진광	1		태90			
3.30.	연기	홍일섭	1		1년			
3.31.	아산	김복희, 한연순	2	2월	3월			
3.31.	연기	이덕민, 김봉식 등	5		10월			
3.31.	연기	임현상	1		태90			
4.01.	연기	임희수, 임만수	3	태60	태90			
4.01.	연기	유시풍	1		1년	1	1	
4.01.	공주	김관희, 김수철 등	18	무죄	1년(집유)			

4.01.	공주	이기한, 이동엽 등	26	8월	3년	25	1	별건
4.01.	공주	성억복, 안성호 등	12	면소(4)	태90(8			예심
4.01.	논산	배영직	1		6월			
4.01.	대전	김직원, 박종병	2			2(1년3월)	2	
4.01.	천안	조인원, 김교선 등	22	벌금40	5년	17	14	병합
4.01.	홍성	민영갑, 최종삼 등	6	6월	1년	5	5	
4.02.	아산	박진화, 강달성 등	15	1년6월	3년	8	6	병합
4.02.	연기	임현규	1		6월	1(집유)		
4.03.	예산	장문환	1		1년6월			
4.04.	서산	이인정, 송재만 등	86	태90	5년	36	4	병합
4.04.	아산	정수길, 김천봉 등	5		2년6월	5	5	
4.04.	예산	민제식	1	태	태90			
4.04.	예산	정인하	1		6월			
4.04.	예산	성원수	1		1년	1	1	
4.05.	서산	오인택	1		6월			
4.05.	예산	박성식	1		6월			
4.05.	예산	박대영, 최문오	2		1년	2	2	
4.05.	청양	홍범섭, 박상종 등	5	1년6월	2년	5	5	
4.05.	청양	박공삼	1	10월				
4.06.	청양	전성순, 정일택	2		태90			별건
4.07.	청양	윤병환, 이동명	2		6월			
4.07.	홍성	이길성, 황문수	2	6월	10월	1	1	
4.07.	홍성	김동화, 윤형중 등	29	태90	3년	7	7	별건
4.08.	서산	김옥제, 이봉하 등	4	태90	6월			별건
4.08.	청양	유남식, 김사길 등	4	태90	6월	1		별건
4.09.	청양	김현규	1		6월			
4.10.	보령	김사구, 강영국	2		6월	2	2	
기타1		나창섭, 한주섭 등	3	태90	2년			
기타2		이건희, 이민행	2	6월(집유)	6월			
기타3		김복한, 임한주 등	7	6월(집유)	1년			
합계			415			183	96	

* 공주지방법원을 기준함

** 형량은 징역형임

*** 기타1는 1919년 4월 14일 공주지청의 선고 3명이나 활동 및 관련 사항의 파악이 안됨

**** 기타2는 1920년 공주지청의 선고 2명이나 활동 및 관련 사항이 파악이 안됨

***** 기타3은 파리 장서 관련 인사로 대구지방법원 판결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국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면소 등을 받은 인사들은 국가기록원의 형사사건부에서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참가자 불기소 처분 현황(국가기록원 형사사건부)

일자	장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증거불충분	불기소	기타	합계	비고
3.03./06.	부여	1	2	4		1	7	
3.08.	광천		2			1	3	
3.10.	당진			2			2	
3.10./20.	논산			46			46	
3.12.	논산			1			1	
3.16.	대전				1		1	
3.20.	천안	39					39	
3.24.	서산	9					9	
3.27.	대전					2	2	
3.31	예산			7			7	추정
4.01.	공주		2	10		1	13	
4.01.	공주			8			8	
4.01.	천안	3					3	
4.01.	홍성		1	1			2	
4.03.	예산	2					2	
4.04.	서산	41	30	20	2	7	100	7*
4.04.	아산	1	5	1			7	
4.04.	예산		1				1	
4.05.	청양	1	1	3			5	
4.07.	홍성		8				8	
4.08.	서산	1	3				4	별건
4.17.	보령			1		1	2	
4.99.	논산	1					1	
기타1		1		1			2	
합계		100	55	105	3	13	275	
기타2				12			12	

* 기타는 불기소 처분 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인사, 활동 일자가 불명확한 인사임

** 7*는 면소방면 4명, 사망으로 공소권 소멸 2명, 기소 중지 후 재판 회부자 1명을 의미함

*** 4.17. 보령의 기타 1명은은 공소 중지임

**** 4.99.는 일자가 불명확함

***** 기타1은 1919년 4월 22일, 7월21일 공주지청의 선고이나 활동이나 관련 사항의 파악이 안됨

* 기타2는 1919년 1명, 1920년 8명, 1921년 3명이 공주, 강경, 홍성지청에서 처분이고 이외에도 1920년 12월 21일 강경지청에서 면소 선고 1명이 있음.

그리고 체포 구금된 인사 가운데 검사국으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서나 헌병분견대나 분견소에서 경찰서장, 헌병분대장, 헌병분견소장의 즉결 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각 면사무소에 비치된 수형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통계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충남지역 3·1독립운동 참가자 수형 기록 중 태형자 상황(2018. 현재 파악 자료)

군	면	자료명	처분청명	인원	비고
공주	의당	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공주경찰서	15	
공주	정안	범죄인명부			재판 23명
공주	강경	즉결범죄인명부	강경경찰서	2	
공주	노성	범죄인명부	강경경찰서	2	
공주	별곡	범죄인명부			재판 1명
합계				19	
당진	대호지	범죄인명부	서산경찰서	79	재판 30명
당진	우강	범죄인명부	홍성경찰서	1	
합계				80	
보령	청라	범죄인명부	보령경찰서	1	
합계				1	
부여	임천	범죄인명부			재판 3명
서천	시초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재판 1명
아산	도고	범죄인명부	온천리헌병분견소	80	
아산	선장	범죄인명부	온천리헌병분견소	111	재판 5명
아산	온양	범죄인명부	온천리헌병분견소	18	재판 1명
합계*				209	
예산	신양	수형인명표폐기목록	예산헌병분대	7	재판 1명
예산	신암	범죄인명부	예산헌병분대	20	재판 1명
예산	봉산	범죄인명부	예산헌병분대	14	
예산	음봉	범죄인명부	예산헌병분대	12	
합계				53	
청양	정산	범죄인명부	청양헌병분견소	147	재판 7명
청양	화성	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청양헌병분견소	35	재판 2명
청양	대치	범죄인명부	청양헌병분견소	4	
청양	목면	수형인명부	청양헌병분견소	40	
청양	운곡	범죄인명부	청양헌병분견소	44	
청양	장평	범죄인명부	청양헌병분견소	1	재판 1명
합계*				271	
홍성	결성	수형인명표폐기목록			재판 1명
홍성	구항	수형인명표폐기목록장	홍성경찰서	8	
홍성	금마	범죄인명부	홍성경찰서	176	재판 6명
홍성	은하	범죄인명부	홍성경찰서	11	
홍성	장곡	범죄인명부, 수형인명표폐기목록	홍성경찰서	14	재판 28명
홍성	홍동	범죄인명부	홍성경찰서	50	
합계				259	
전체 합계				892	

* 죄명 : 보안법

** 이외 추가 확인 필요

*** 아산의 합계*는 송악면의 범죄인명부 유실로 미포함됨(송악면 41명(필자 논문))

**** 청양의 합계*는 운곡면의 범죄인명부 일부 유실로 미포함됨(운곡면 94명(필자 논문))

전체 합계 892명에 아산 송악면 41명, 청양 운곡면 50명을 합하면 총인원은 983명임
경찰서나 헌병분대에서 태형을 당한 인사가 983명임.

이상과 같이 일제의 무력 진압과 사법적 탄압 이외 행정적 탄압도 있었다. 우선 조선 총독의 유고에 이어 도장관 상원(桑原明府)은 ‘경고(警告)’를 통해 ‘不逞徒輩의 煽動을 依하야 … 軍隊 及 警察官憲이 一步라도 斷不容貸하고 最後의 處置를 行할 方針인 즉 一時的 不注意로서 附和雷同하야 喧騷를 敢爲할 時는 不意의 奇禍를 當할지니 庶民은 各其 家族 雇人을 戒束하야 騷擾에 參加하는 等 輕舉가 無하도록 注意할 事’라며 독립운동을 할 경우 강력한 탄압을 자행할 것을 공고하며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게 했다.²²⁾

일제의 행정적 탄압으로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것이 시장 폐쇄이다. 철시는 독립운동 전개 과정에서 항일(抗日)로써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시장을 폐쇄하는 것이 일제에게는 독립운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율책이었다. 충청남도 도청은 4월 초 도내 40개소 시장의 개시(開市)를 정지시켰다.²³⁾ 공주에서는 4월 1일 공주 독립만세운동으로 철시한 이어 독립만세운동, 특히 햇불독립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일제는 군수의 시장 규칙에 근거해 ‘게시(揭示)’로 공주 군내 8개 시장을 철시하도록 명령했다.²⁴⁾ 논산에서는 4월 5일 시장 폐지령으로 5개 시장을 철시시켰다. 아산에서는 4월 초순 폐지되었다가 4월 26일 온양 시장, 4월 29일 선장 시장이 개시됐다. 서천에서는 3월 29일 독립만세 후 군청과 경찰서에서 3회(回) 정시(停市)를 명령해 상민(商人)과 장사꾼(營業家)의 생활상 곤란을 겪은 후 4월 8일부터 개시했다.

일제의 행정기관장과 치안기관장들이 직접 독립운동 전개지에 나아가 회유하거나 훈계가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공주 정안의 사례로 정안에서 독립만세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피신하거나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짐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나아가 회유했다. 4월 21일 도장관, 경무부장, 군수, 경찰서장 등이 정안면으로 출동해 약 600명의 면민들을 집합시켜 회유와 훈계로 설득했다. 이에 면민들은 독립만세운동 주도 인사로 체포 구금된 인사들을 속히 방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 3장을 이들에게 제출하기도 했다.²⁵⁾ 이어 5월이 되어도 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지한 도장관과 경무부장은 2차로 정안면 광정리 현장으로 출장 나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유시했다.²⁶⁾ 그리고 일제가 지속적으로 검거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미리 집을 비우고 타지로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지자, 경찰서장은 직접 정안 석송리에 나아가 의당면 울정리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유하기도 했다.²⁷⁾ 연기에서는 3월 28일 동면 면사무소에 면민들을 집합시켜 연기 군수는 연일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해 ‘시국에 관한 불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훈계했고, 이어 3월 29일에는 군 서기는 동면, 군수는 서면으로 출장 가서 면내 유력자들을 소집해 설유하기도 했다. 보령에서는 4월 중 대전 면사무소에서 도 서기가 총독의 유고문을 송독하고 훈유했으며, 보령 군수는 각 면으로 출장 가서 면민들에게 훈계하고 경찰들은 경비 단속을 강화했다. 당진에서는 4월 2일 주재소 순사와 합덕 면장 김철호가 만세 군중들을 강압하여 해산시켰으나 당진 군수와 경찰서장이 직접 범근리로 출동해 강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일제는 친일파를 동원해 회유책으로 간담회(懇談會)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도청 주도의 간담회

22) 『매일신보』 1919년4월5일자 2면6~7단, 「忠南道廳 警告 - 管内 人民의게」.

이 도장관의 경고는 『매일신보』 1919년4월13일자 4면3단, 「公州 - 忠清南道 警告」로 재게됐다.

23) 『매일신보』 1919년4월22일자 3면4단, 「忠南의 市場 停止 解除」.

시장 폐쇄의 해제는 시장 관계자와 지방 유력자가 ‘금후로는 결코 소요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맹서하여 연명 서약을 제출하면 군수와 경찰서장이 서약의 확실성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김진호, 「아사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제7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31~2쪽 참조).

24) 공주경찰서장의 요구로 공주 읍내 시장은 4월 6일부터 개시되었다.

25) 『매일신보』 1919년4월24일자 3면3~4단, 「妄動을 後悔- 충남 공주군 정안-면의 배성들이」.

26) 도장관보고철, 朝鮮總督府內秘補954/忠南騷秘第228號, 1919.5.13.

27) 『매일신보』 1919년5월17일자 4면1단, 「公州-警察署長曉諭」.

는 도청에서 일자를 조정하고 도청 고등관 등을 직접 파견해 간담회를 주관하도록 했다. 4월 21일 대전, 4월 23일 논산, 4월 25일 공주, 4월 27일 아산 등지에서 개최됐다.²⁸⁾ 특히 아산에서는 온천리헌병분견소에서 군내 12개면 군민들에게 5월 3일까지 면장과 구장 함께 ‘금후에는 일제의 명령을 준수하고 절대로 소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어 분견소에 출두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했다.²⁹⁾ 논산에서는 원은상 군수가 각 면을 돌아다니며 간담회를 개최하여 ‘今般 騷擾에 대한 誤解를 說明’하기도 했다.³⁰⁾

이에 반해 친일파들이 주도한 간담회도 있었다. 공주에서는 4월 25일 도장관, 경무부장, 참여관, 제일부장, 수비대장, 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 이어 6월 7일에는 김갑순(金甲淳), 유병각(劉秉珪, 공주면장), 이현주(李顯周) 등의 발기로 산성공원 유심각에서 ‘內鮮人’ 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있었다.

친일 세력의 활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친일파 주도의 간담회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공주 정안에서는 5월 도장관과 경무부장이 2차로 광정리에 출장한 후 정안의 유력자 12명이 165원의 기부금을 각출해 파괴된 정안경찰관주재소를 수선해 복구하기로 결정했다.³¹⁾ 내선기독교 강사 유일선(柳一宣)은 공주, 논산 등, 박학면(朴鶴冕)은 보령 등을 다니며 지역 인사, 교사 등을 불러 모아 ‘소요사건의 誤解 妄動’을 설파하며 순회 강연을 다니기도 했다. 아산 도고의 면서기 최종선(崔鍾璿)은 4월 25일자 『매일신보』에 ‘대국(大局)에 착안하라’는 친일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서천에서는 4월 27일 군청에서 군내 유력자 60여 명을 초대해 간담회를 가졌는데 조병증(趙秉證)이 서약서(誓約書) 제출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³²⁾

5. 3·1독립운동의 의의(성격)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은 3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57일간에 37일에 걸쳐 전개됐다. 우선 독립운동은 전개 과정과 전개 횟수를 기준으로 크게 3시기로 구분된다.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독립운동으로 초기 단계로 1일에 1개소에서 1회의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는 사례가 많았다. 10일 전후로 2~3회의 독립만세를 외치고 23일에는 연기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면서 장소나 횃수가 증가했다. 3월 27일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3월 30일부터는 독립만세운동의 횃수가 증가하고 횃불독립만세운동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절정기를 보였다. 3월 30일 천안 풍세에서 20여 개소, 3월 31일 아산에서 50여 개소, 4월 1일 아산의 6개면, 4월 2일 아산의 12개면, 4월 3일 공주 탄천 면내 22개 마을(통계 1회), 당진 순성의 10개 마을, 예산의 4개면, 4월 4일 당진의 면천 8개 마을, 순성 10개 마을, 예산 군내 18개소, 홍성의 4개면 20~24개소 등에 대규모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4월 9일부터 급속히 약화되어 12일 이후는 며칠마다 1회 정도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는 쇠퇴기로 접어들었다(부록 참조).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전개에 있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동안에 전체 414회 가운데 254회나 전개되어 전체 독립운동의 61.35%에 해당된다. 즉 이 5일 동안이 충남지역 3·1독

28) 『매일신보』 1919년4월24일자 2면5단, 「忠南官民懇談會」: 1919년5월4일자 4면4단, 「牙山 懇談會」.

29) 『매일신보』 1919년5월15일자 3면7단, 「十二面の 人民 서약서를 데출함」.

서약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서천(舒川)에서 제출한 서약서(6개항목)가 참고된다(『매일신보』 1919년5월4일자 4면4단, 「舒川」).

30) 『매일신보』 1919년5월30일자 4면2단, 「論山 - 懇談會」.

31) 도장관보고철, 朝鮮總督府內秘補954/忠南騷秘第228號, 1919.5.13.

32) 『매일신보』 1919년5월4일자 4면4~5단, 「舒川- 名望家の 結束」.

립운동의 최정절기였다.

둘째 국장 참례 등의 상경 인사들이나 유학 중인 학생들이 귀향해 각 지역의 최대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다. 연기 전의의 이수옥은 3월 13일, 서산 대호지의 남주원 등은 4월 4일, 청양 정산의 홍범섭은 4월 5일에 각각의 지역에 최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휘문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철은 독립신문 등 유인물을 갖고 귀향해 면사무소에서 인쇄해 김창규에게 전달해 3월 27일 대전 인동 시장의 독립만세운동, 중앙학교에 재학 중인 윤익중과 경신학교 재학 중인 윤낙중은 귀향해 김동화와 함께 4월 7일 홍성 장곡의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 이화학당의 유관순, 박루이사는 4월 1일 각각 천안 병천 아우내와 공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화학당의 김복희도 3월 31일 아산 군내 각지에서 전개된 햇불독립만세운동 때 염치 백암리에서 주민들을 이끌고 햇불독립만세를 외쳤다. 배재학당의 이종연도 4월 17일 보령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셋째 독립선언서가 직접 경성에서 배부되지는 않았지만 독립선언서도 지역 독립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전술한 바와 같이 3월 2일 전북 함열에서 논산 옥정 천도교 교구실에 독립선언서 2묶음이 전달되고 이어 김태호가 부여로 1묶음을 전달하여 3월 3일 논산과 부여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으나 독립만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강경에도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3월 6일 부여 임천에서 부여의 독립선언서 인수와 배포에 관련한 인사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특히 일제 치안기관인 헌병주재소에 가서 헌병들에게 ‘독립을 승인하라’라고 요구했다. 홍성 광천에서는 3월 6일 박원식의 동생 박세화가 경성에서 가져 온 독립선언서를 형과 이명종에게 보여 3월 8일과 18일 2회에 걸쳐 독립 유인물을 제작해 부착하거나 민가에 배포했다. 태안에서는 야소교와 천도교에서 배부한 독립선언서를 읽은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전해지는 것이 유일한 태안의 독립만세운동이다. 청양에서는 정산 백곡리의 홍범섭이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던 3월 중 상경하여 경성에서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귀가해서 4월 5일 정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넷째 초기 독립만세운동은 보통학교 등 학생들이 이끌었고 이후 독립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월 10일 당진 면천에서 보통학교 학생인 원용은, 박창신 등이 직접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었다. 3월 11일에는 아산에서 온양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3월 14일 천안에서 목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의 독립만세운동은 지역의 최초 독립운동이었다. 이어 3월 12일 아산에서 학생들이 온천리 시장에서 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쳤고, 같은 날 논산에서 강경의 학생들이 면민 100여 명과 함께 논산 읍내로 진입해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3월 13일에는 예산에서 대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장에서 만세를 불렀다. 3월 20일에는 천안에서 입장 양대리의 광명 여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광부들과 시장에 독립만세를 외치고 입장 시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공주 영명학교 학생들이 주도해 공주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8일에는 홍성에서 고도 상촌리의 갈산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불렀고 장곡 도산리에서는 4월 7일에 이어진 독립만세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해 주민들과 면사무소를 공격했다.

다섯째 독립운동의 전개에서 당시 대표적 세력들이 모두 참여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천도교 세력으로 3월 14일 공주 유구의 황병주, 3월 14일 아산 온양의 현창규, 4월 4일 선장 군덕리의 정수길 등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야소교 세력으로 3월 14일 아산 영인, 3월 29일 서천 마산의 송기면 등, 3월 20일 천안 입장의 여학생, 3월 30일 천안 입장, 4월 1일 천안 병천 아우내와 공주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유림으로 4월 1일 공주 정안의 이기한, 4월 4일 서산 대호

지의 남주원 등, 4월 7일 홍성 구항의 이길성 등이 대표적이고 지역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파리장서운동은 지역 유림들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면장이 주도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인 서산 대호지-정미 독립만세운동이다. 그러나 3월 하순 독립운동이 일반화되면서 독립만세운동의 주도 세력도 변화했다. 광부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으로 직산 광부들이 주도한 3월 20일, 3월 28일 천안 입장의 독립만세운동이고 상인들이 주도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이 4월 1일 대전의 인동 시장에서 독립만세이였다. 홍성에서 전개된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인 4월 1일 금마 독립만세운동은 잡화상인 민영갑이 주도했다.

여섯째 독립운동은 평화적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일제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는 공격적 독립운동으로 대응했다. 독립운동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거나 낭독한 경우, 태극기를 배부하고 군중들과 함께 흔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맨손으로 독립만세를 외쳤고 햇불독립만세운동인 경우는 더욱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가 주도 인사를 체포 구금하는 경우나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에는 만세 군중들도 적극적인 항거로써 일경, 헌병, 보병들에게 투석하거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재소도 공격 파괴했다. 주재소나 출장소를 공격한 사례로 3월 14일 공주 신상(유구), 3월 28일 천안 입장, 3월 29일 서천 마산, 4월 1일 공주 정안과 천안 병천, 4월 2일 아산 신창, 4월 4일 서산 정미(천의)와 아산 선장 등이 대표적이다. 농민들이 농기구로 주재소를 공격한 것으로 4월 1일 공주 정안의 광정리경찰관주재소과 대전 유성의 헌병주재소 공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재소 일경들이 부재 중임에도 주재소를 공격한 사례는 4월 1일 공주 정안의 광정리경찰관주재소를 공격 파괴한 사례도 있었다. 일경들의 무력 진압에 무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사례도 4월 1일 천안 병천에서 있었다. 이어 헌병과 일경에게 투석하거나 구타 등 공격한 사례로 서산 5건, 청양 4건, 예산 3건, 공주와 천안 및 논산 각각 2건, 아산과 서천 각각 1건, 대전 4건 등 24건이 있다. 이외 면사무소를 공격한 사례로 4월 2일 아산 신창, 4월 4일 예산 광시, 4월 6일 청양 화성, 4월 7일과 8일 홍성 장곡 등이 대표적이다. 우편소 공격은 4월 1일 천안 병천에서, 학교 공격으로 4월 2일 아산 신창 등에서 있었다. 일본인 가옥의 파괴로 4월 1일 공주 정안, 4월 4일 서산 정미에서 있었고 일본인 민간인이 만세 군중들을 제압하려고 응징을 당한 사례로 4월 4일 서산 정미에서 있었다. 그리고 체포 구금된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제를 응징한 사례로는 3월 14일 공주 신상(유구), 3월 29일 서천 마산, 4월 4일 예산 덕산, 4월 5일 청양 정산 등에서 전개됐다. 이상과 같이 공격적 독립만세운동은 3월 14일 공주 신상(유구) 등을 제외하고는 3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3·1독립운동의 일반화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제의 탄압도 잔혹해진 상황에서 독립운동도 격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독립운동으로 햇불독립만세운동을 타 지역보다 가장 활발히 전개했다.³³⁾ 3월 23일 충북 청주의 강내면민들이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연기 조치원 방면을 이동해 와서 연기 지역민들이 호응해 함께 햇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3월 말경까지 주로 연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던 햇불독립만세운동은 이후 아산, 예산, 청양, 홍성 등 충남지역의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3월 31일부터 면내 20여 개소, 8개 마을, 10개 마을, 22개 마을, 군내의 18개소, 20~24개소, 50여 개소, 군내 전체 12개면 등에서 같은 날 동시에 전개되었다. 전체 독립운동 414회 가운데 햇불독립만세운동이 268회로 전체 64.73%에 해당된다. 즉 10회의 독립운동 가운데 6~7회가 햇불독립만세운동으로 전개된 것이다. 햇불독립만세운동은 독립운동으로서 독립만세운동이 갖는 현실적 제약성과 한계성, 즉 시간적 공간적 제약(낮

33) 김진호, 「충남지방의 햇불독립만세운동」,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편, 2019 참조.

시간, 장소 집합 등)이나 일제 군경의 직접적 진압을 받고 특히 무력적 탄압으로 사상자 발생하는 상황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등장되어 확대된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의 확장성으로 햇불독립만세운동이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야간을 이용한 햇불독립만세운동은 독립운동의 가시성(可視性)과 전파성(傳播性) 측면에서는 독립만세운동 보다도 효과가 컸다. 또한 햇불독립만세운동은 마을 단위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전개되었고 참가자들은 마을 주민들로 연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태형을 당했다.

여덟째 독립운동의 전개지는 산과 마을이 많았다. 물론 햇불독립만세운동이 전체 독립운동의 65%나 차지하는 만큼 독립운동의 전개지로 산(山)이 가장 많았다. 214개 장소에서 산이 77개소로 전개지 전체의 35.98%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마을로 60개소로 전개지 전체의 28.04%에 해당된다. 그 다음이 시장으로 40개소로 전개지 전체의 18.69%에 해당한다. 이는 시장보다 마을에서 독립운동을 더 많이 전개했다는 것이고 또한 다른 지역보다 충남지역의 3·1독립운동은 마을 단위로 많이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아홉째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원은 93,000명 정도로 추계된다. 박은식의 『독립운동지혈사』에 충남지역에 참가자 94,000명과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 필자가 조사한 참가자 인원은 67,179명(최소) ~ 88,988명(최고)이나 홍성과 서산의 참가 인원을 추계한 인원인 3,240명 ~ 3,740명, 3,940명 ~ 4,130명으로 환산하면 71,474명(최소) ~ 93,092명(최고)이 된다. 참가자 인원은 부여와 보령의 경우에 확인되는 참가자나 체포자로만 합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³⁴⁾

열째 독립운동은 일제의 무력 탄압 속에서 전개됐다. 일제의 일경, 헌병, 보병들이 독립운동 전개지에 직접 출동해 무력 진압으로 총기를 발포한 것이 31건이나 된다. 홍성 6건, 서산 6건, 천안 3건, 논산 3건, 청양 3건, 예산 3건(공포 1건 포함), 공주 2건, 아산 1건, 서천 1건, 대전 3건 등 31건이다.³⁵⁾ 총기를 발포하거나 총검을 휘둘러 독립운동 전개 기간 동안에 50여 ~ 80여 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거나 부상으로 이후에 사망했고 70여 ~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현장이나 이후 색출 검거 활동으로 650여 ~ 93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물론 이 통계는 주로 일제 측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인사들은 415명이 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 판결을 받았고 280여 명 대부분이 검사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태형을 당한 인사가 980여 명으로 1,000명 정도에 이른다.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심문 조사를 실시한 일경과 헌병들에 의해 자행된 구타, 폭행, 고문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까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태형을 당하고 석방되어 귀가한 태형자는 신체적 상처에 따른 아픔을 극복해야 함을 물론이고 자신의 정신적 충격도 치유했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들도 그 참담한 상흔을 감내해야 하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태형이 4월 초순부터 경찰서나 헌병분견소에서 자행된 것도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이 급속히 악화된 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사적 무력 탄압과 사법적 탄압에 이어 행정적 탄압도 심했다. 조선 총독의 유고는 물론이고 도장관의 경고는 독립운동을 할 경우에는 강압적인 탄압과 진압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이지만, 이는 8년 6개월간의 헌병무단통치 하에서 식민지 직접지배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장기간 폐쇄하는 폐시 명령은 농촌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도장관, 군수, 면장의 행정기관장과 경무부장, 경찰서장 심지어 수비대장까지 나서 지역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억압 정도의 설유와 훈계로 지역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더불어 친일파들이 독립운동을 계기로 일제에 협력하며 자신들의 지역 사

34)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부여는 3,000명, 보령은 6,0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35) 일제측 기록에 근거한 통계이다.

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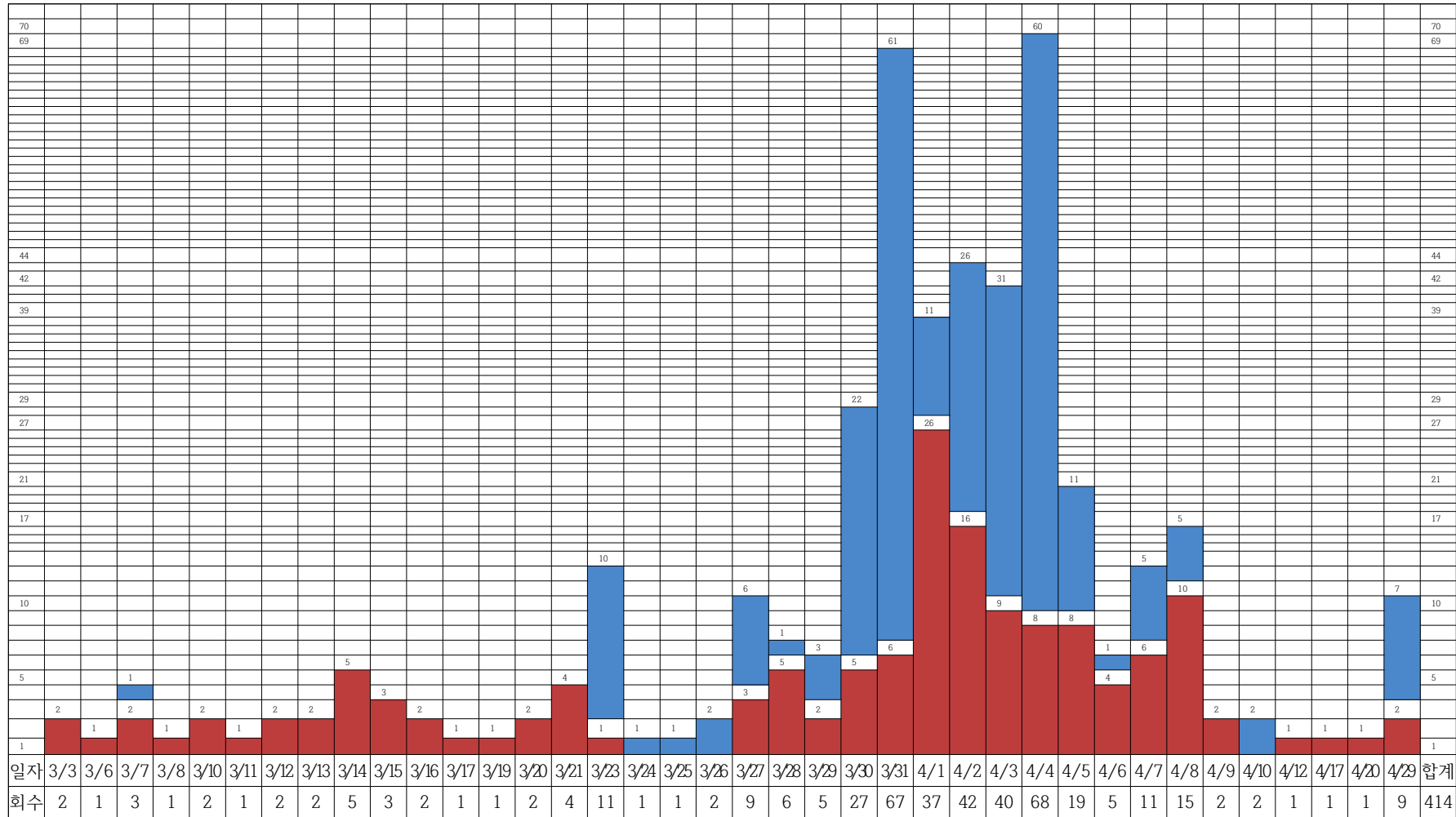
6.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충남지역에서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논산에 전달되고 이어 부여에 교부되어 3월 3일 논산과 부여에 배포됐다. 3월 3일 예산의 윤철영 등 5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대전에서도 만세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후 1, 2개 군에서 3~5회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전개되던 독립운동은 3월 하순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가 3월 27일부터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3월 30일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 동안은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최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4월 9일부터는 독립운동이 급속히 약화되는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는 독립운동의 일반화가 가속화되면서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이 확산되고 공격적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그에 따라 일제의 무력 진압으로 충격을 받고 총검을 휘둘러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체포 구금자가 증가되고 그리고 태형이 본격적으로 경찰서와 분견소에서 자행되면서 한국인들을 고통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은 214개 장소의 437곳에서 독립만세운동 146회, 햇불독립만세운동 268회, 합계 414회에 걸쳐 연인원 67,000여 ~ 89,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외 유생들의 장서운동(상서, 선언장서, 파리장서), 독립선언서 배포, 격문과 유인물 배포, 독립만세 권유 활동, 방화, 공격 파괴 활동, 철시 운동 등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사전에 탐지를 당해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계로 처리하면 454회로 450회 이상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우선 무력 진압으로 50 ~ 80 여명이 현장이나 부상 후 사망했고, 70 ~ 1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50 ~ 93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이들 인사들 가운데 지방법원(공주, 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인사가 415명이고 불복해 공소를 제기해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인사가 183명이며 이에도 불복해 상고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인사가 96명이나 된다. 이들의 판결문은 143건이나 14건은 확인되지 않아 현재 129건의 판결문이 있다. 또한 검사국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지방법원에서 면소 처분을 받은 인사가 280명이나 된다. 그리고 경찰서나 헌병분견소에서 태형을 당한 인사가 983명이 확인되며 적어도 1,000여 명 이상이 잔혹한 비인간적인 태형을 당했다. 이를 통해 체포된 인사를 보면, 법원, 검사국, 경찰서나 헌병분견소에서 일제의 탄압을 받은 인사를 합하면 1,695명으로 1,700여 명이 된다. 그리고 행정적 탄압으로 총독의 유고나 도장관의 경고, 폐시, 도장관, 군수, 경찰서장, 수비대장 등의 행정과 치안기관들이 강압적 설유, 간담회, 서약서 요구 등을 통해 한국인을 압박하고 탄압했다. 이에 독립운동을 계기로 친일파들이 일제에 협력하며 기반과 세력을 확대시키려는 양상도 나타났다.

<부록> 충남지역 3·1독립운동의 전개 상황 - 일자별 독립만세운동과 햇불독립만세운동 횟수



<주제발표 2>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

정 을 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
- 100주년 기념 충남인의 독립정신계승 방안 모색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018년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 중 가장 의미있는 행사는 2018년 12월에 개최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킨 어른, 이동녕을 재조명하다’라는 주제의 전문가포럼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3.1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나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임시정부를 조망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임시정부의 중요 핵심 인물인 이동녕이 충남 천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미흡했다는 점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임시정부와 충남이라는 주제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했고, 2019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시정부와 이동녕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주제를 어떻게 2019년부터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 포럼을 기획하였다.

이 포럼에서 한시준(단국대) 교수는 기조강연 주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과 독립정신, 그 후 100년’에 대해 강연하였다. 한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에 충남인들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이 충남의 독립정신으로 계승되어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병길(천안시) 학예사는 ‘이동녕의 생애와 구국운동’을 통해 이동녕의 생애뿐 아니라 국내에서 전개했던 구국운동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뒤이어 강윤정(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부장은 ‘이동녕의 만주와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이동녕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어떠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끝으로 오대록(독립기념관) 연구원은 ‘이동녕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이동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위상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기조강연과 주제 발표 후,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한준호(경북독립운동기념관) 학예사, 김은지(독립기념관) 연구원, 최명진(공주시) 운영팀장,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이동녕의 독립운동과 향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동녕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주목되지 못한 이유를 도출하였고, 그가 충남지역과 함께 어떠한 방식과 방법을 통해 기념되고 현양되어야 하는지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는 기획들과 검토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도출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 포럼에서 나온 여러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연구원 자체적으로 혹은 충청남도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수행할 계획이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3.1운동으로 인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점, 임시정부 수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었다는 점, 임시정부수립은 군주주권의 역사를 국민주권의 역사로 즉, 민주공화제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점 등은 독립운동사에서 독립만큼 중요한 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수 천 년 동안 군주주

권과 전제군주제에서 살았으나,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3·1독립선언의 발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일어난 해는 1919년이다.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계기는 파리강화회의였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승전국들이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 대표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만방에 알렸고, 독립의 방법으로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유학 한인학생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어 3월 1 일에는 국내에서,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미주 등지에서도 잇따라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독립선언 중에서도 국내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는 특별하다. 이 독립선언서에는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선언하노라”라고 명기하여,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독립국이라는 점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독립국이라는 점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독립선언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독립국이 수립되어야 했다. 이 독립국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것이다. 독립선언 발표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중국 상해의 프랑스조계지로 모였다. 곧이어 4월 10일 이들 중 29명이 대표로 선정되었고,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라고 명명하였고, 이 의정원의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다. 뒤이어 의장 이동녕의 사회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통해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행정수반의 명칭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무·외무 등 6개의 행정부서를 둔다는 관제(官制)를 결정하였다. 투표를 통해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에 안창호 등을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하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1919년 4월 11일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임시정부를 일컫는 용어인 것이다.

상해의 임시정부 이외에도 국내외 8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적 기반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던 곳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한 대한국민의회, 국내에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한성정부 3곳이었다. 이 세 곳이 모두 대표 기구로써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합이 추진되었다.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두고,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며, 국내의 한성정부의 각원이 정부의 각원을 맡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통합은 임시의정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임시의정원은 행정수반의 명칭을 대통령으로 한다는 헌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한성정부 총재였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1919년 9월 11일 통합정부(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1945년 11월 국내로 환국하였다.

이후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군의 한반도 점령으로 독립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3년 만에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한국인들에게 돌려주었다. 1943년 카이로회의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자유 독립되게 한다’는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1943년 7월 26일 김구와 조소앙, 김규식, 이청천, 김원봉이 장개석을 찾아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관철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카이로선언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에서 수립하였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하였던 것이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점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충남

모두들 아는 것처럼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광범위한 독립운동이었다. 독립에 대한 의지만 있고 두 손만 있다면 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 따라서 충남지역에서도 3·1운동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충남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충남 출신 인물들이 3·1운동 뿐 아니라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충남 출신인 한용운·이종일·유관순 등의 걸출한 독립운동가가 3·1독립선언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동녕을 비롯하여 윤봉길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뿐 아니라, 중국에서 26년 동안의 활동은 국내의 국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한국인들의 참여와 지원으로 가능했다. 이러한 참여와 지원에 충남인들의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인물 중 한용운은 충남 홍성 출신이다. 또 독립선언에 서명자 중 한 사람이자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담당하였던 이종일은 태안 출신이다. 잘 알려진 정보는 아니지만, 만주 길림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에 홍성 출신 김좌진이 참여하였다.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1일 길림에서 국내외 인사 39명의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2·8독립선언서 및 3·1독립선언서와 더불어 3대 독립선언서로 평가받고 있다. 김좌진은 조소앙 등과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대한독립의군부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충남 출신 인물들이 큰 기여를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수립되었다는 점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당시 임시의정원 의장은 천안 출신 이동녕이었다. 이동녕은 의장으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주도하였다. 그의 주도하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의 역할이 막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 중반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활동은 극히 침체되었다. 이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은 상해 홍구공원의거였고, 그것을 실행한 인물이 예산 출신인 윤봉길이다.

윤봉길은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열린 일제의 상해전승축하식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거행하였다. 단상에 있던 주중공사 시게미쓰 등이 큰 부상을 입었고, 상해거류민단장과 육군대장 시라카와는 죽었다. 특히 시라카와 육군대장은 일본육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한국독립운동의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역사의 의미뿐 아니라 중국대륙을 침략하는 일본군의 수뇌를 처단했다는 점에서도 중국에게도 큰 의미를 갖는 의거였다. 일제가 1932년 1월 28일 상해사변을 일으켜 상해를 침공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30만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중국군 30만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명이 해낸 것이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국의 지원과 미주동포들의 후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임시정부를 떠났던 인사들이 다시 참여하여 조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재정적 지원과 후원으로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조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하였다.

4. 맺음말

충청남도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도 작년부터 100주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구상하는 사업들은 대동소이하다. 이에 충남이라는 지역성을 부각할 신선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오랜 고민 끝에, 3.1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포지역의 3.1만세운동 전개와 의미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기획하였다. 또한 3개년에 걸쳐 충남의 각 지역별 3.1만세운동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및 기록화작업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충남 각 지역 3.1만세운동의 특색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채록 등 원형 콘텐츠를 기록화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 천안 출신 이동녕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주목하였다.

3.1독립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관계한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는 한용운, 이종일, 유관순, 이동녕, 윤봉길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 유독 이동녕과 관련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이동녕은 충남 천안 출신으로, 당시 임시의정원 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수립되었는데, 이때 임시의정원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동녕 의장이다. 그의 주도하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동녕이라는 인물은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연구원이 개최한 2018년 이동녕 전문가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충청남도 와 연구원은 꾸준히 이동녕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이동녕에 대한 대중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동녕과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동녕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는 ‘통합’, ‘통일’, ‘단결’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강조되는 키워드와 이동녕의 키워드가 일치했다. 나아가 이동녕을 기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남의 독립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이동녕 기념관 활성화, 이동녕과 관련한 세미나와 회의 개최, 이동녕 관련 자료집 편찬을 통한 연구 작업 수행 등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동녕이라는 인물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이동녕과 충남의 독립운동가를 연계한 폭넓은 연구사업 발굴, 이동녕과 관련한 해외 사적지의 탐방프로그램 운영, 이동녕의 활동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자원화와 연계, 이동녕 기념사업회 조직을 통한 기념사업 수행, 이동녕과 국회의 연관성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전국적으로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2019년에 반짝했다가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획과 계획을 통한 중장기적인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와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동녕을 비롯한 충남의 독립운동가, 충남의 독립운동, 충남의 독립정신 등에 대한 대중화와 연구 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원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충남도와 각 시군의 관심과 필요성 인지, 도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된 충남의 독립정신 현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星 理 理

이 동 언(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

김진호 선생님의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와 정을경선생님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100주년 기념 충남인의 독립정신 계승 방안 모색」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두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호 선생님께서는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에 대해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충남지역 3.1운동 전개 상황을 횡수, 장소, 참가자, 군별 만세횟수, 횃불시위 횟수 등을 일자별 통계자료까지 자세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순국자, 부상자, 체포자 상황도 도표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충남지역 3.1운동 재판 현황(국가기록원 판결문), 3.1운동 참가자 불기소 처분 현황, 3.1운동 참가자 수형기록 중 태형자 상황까지 밝혀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 자료집 발간 기념 학술심포지움에서 「중부.남부지역 3.1운동 수감자」 현황과 특징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토론자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3·1운동 관련자료-「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와 「망동사건처분표」

최근에 3·1운동 이후 일제가 한국인을 감시하고 대대적으로 탄압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등록문화재 제730호, 2018. 10. 1)와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망동사건처분표」이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대일항쟁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사진과 인적정보, 수형사실 등을 한장의 카드에 기록한 일종의 개인 신상카드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총 6,264매로 대상인물은 총 4,528명이다. 그중 한국인은 4,409명, 일본은 26명, 중국인은 5명이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가로 15cm, 세로 10cm 카드에 이름, 사진과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인물별로 사진을 붙이고 이명, 본적, 주소, 검거 시기 및 관서, 재판 정보 등을 기재하였다. 각 사진에는 ‘보존원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실제로는 75,000매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 경찰에 검거·수배되거나 감시 받던 인물에 대해 일제 경찰(경기도 경찰부 추정)이 작성한 것이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제가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관순·한용운·안창호 등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 인사들이 다수 들어 있어 이른바 ‘수형인명부’, ‘수형자카드’, ‘독립운동가 신상기록카드’ 등으로도 불려왔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3.1운동 이후 요시찰인을 감시하고 수배하기 위해 만든 카드이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고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보면 활동인물들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자료는 3·1운동으로 한국인을 체포하여 형사처벌한 통계자료인 「망동사건처분표(妄動事件處分表)」이다. 「망동사건처분표」는 1920년 1월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작성하였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주동자로 총 1만 9,054명이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중 피검자 전체 종교를 조

사한 결과를 보면 불교 222명, 유교 346명, 천도교 2,268명, 시천교 14명, 야소교 감리파 518명, 야소교 장로파 2,254명, 야소교 조합파는 7명, 야소교 교파 불명 및 기타 286명, 천주교 54명으로 기독교인이 총 3,065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9,255명, 종교불상은 3,809명이다. 피검자중에서 종교인은 5,990명으로 기독교인이 50% 이상이고, 불교신자는 약4%에 그치고 있다.

일제는 3·1운동을 ‘망령된 행동’이란 뜻의 망동(妄動)으로 비하하였고, 지방 법원별로 검사국에 의한 수리(修理) 인원을 집계하였다. 수리 인원은 일제경찰에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된 피검자를 말한다. 3·1운동 당시 체포되어 검찰로 송치된 피검자중 불교신자는 222명이었다. 그중에서 114명이 기소되었고, 불기소(기소유예 21명, 기타 82명) 103명, 기타이송 5명이다.

「망동사건처분표」 목차를 보면 제1표~제11표까지 표로 작성되어 있는데 제1표 검사처분, 제2표 예심처분, 제3표 제1심판결, 제4표 제2심판결, 제5표 제3심판결, 제6표 유죄 확정판결, 제7표 피고인 연령, 제8표 피고인 信教, 제9표 피고인 교육정도, 제10표 피고인 직업, 제11표 범죄지역 및 범죄시간 등이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충남인의 역할을 읽고

정을경 선생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동녕(1869. 10. 6~1940. 3. 13)의 독립운동 나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상동청년회, 서전서숙, 신민회,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초대교장, 대종교 입교, 권업회, 무오독립선언, 임시의정원 초대위원장, 임정 국무령·주석,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동녕

임정 주석 4차례, 국무령, 국무총리, 의정원 의장 4차례

이동녕의 독립운동 업적에 비해 평가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금부터라도 충청남도과 천안시가 관심을 가지고 선양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관여한 충남출신 독립운동가 이동녕, 한용운, 이종일, 윤봉길, 유관순 등과 연계하여 연구와 자료수집, 교육프로그램, 탐방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충남지역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3.1정신, 충남도가 계승·발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이번 윤경로 전 총장님의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에 관한 기조강연, 그리고 충남 지역 3.1운동의 역사에 관한 김진호 박사님의 주제 발표, 그리고 석오 이동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의 역사와 충남인의 독립정신 계승한 관한 정을경 박사님의 자료 잘 보았습니다. 윤경로 전 총장님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워낙 고명하시고 활동도 많으셔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 제가 북경에서 유학할 때 윤경로 전 총장님께서 북경 대학교 역사학과에 파견 교수로 오셔서 한 학기 강의를 했을 때 강의를 들으며 많이 배웠는데 이번 3.1운동, 임정 수립 100주년인 해에 다시 강연 자료를 보며 또 많이 배웠습니다. 김진호 박사님 덕분에 충남지역의 3.1만세운동을 일거에 섭렵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충남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했는데 김진호 박사님의 세세한 자료, 특히 통계치를 활용한 자세한 집계와 해석을 읽으며 많이 배웠습니다. 충남 전역에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암튼 충남도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을경 박사의 발표자료를 보며 이동녕 선생의 업적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4차례나 역임을 하시는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동녕 선생을 기리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니 앞으로 유관순 열사와 함께 충남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한 분인 이동녕 선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 왜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시작했을까?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며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33인의 민족대표들은 광무황제(고종) 국장일이 3월 3일인데 국장일에는 독립선언을 할 수 없어 3월 2일에 하려고 했는데 2일은 일요일이라 3월 1일 토요일로 잡았다고 한다. 여러 역사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역사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얘기는 아니지만 3월이 영어로 March인데 이 March를 소문자로 쓰면 그 뜻이 ‘행진하다’, ‘행군하듯 걷다’, ‘시위 등에서 가두 행진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가운데 기독교계 대표가 16분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3.1만세운동의 거사를 정할 때 이러한 뜻을 알고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March First, 즉, 3.1만세운동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적이고 장엄하고 치열한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바꾼 대장정이 영어로 Long march인데 우리나라는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5.18, 6.1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100년 동안 독립,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향한 대행진을 이뤄왔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대행진이었고 첫 번째 가는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March First는 우연이 아닌 역사의 필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참 오묘합니다. 독립과 평화를 위한 100년 동안의 행진과 함성은 미래 100년에도 변함없이 나아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 저는 역사가 전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독립운동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태항산 일대 항일 유적지 등을 몇 차례 탐방하고 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동료들과 <타이항산 아리랑>을 출간했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불굴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인 이화림 지사가 중국에서 남긴 자서전을 번역해 <이화림 회고록>을 번역·출간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언급되길 꺼려하는 박헌영과 이현상도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 분들이 북한 정권에 기여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보자면 ‘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좌우의 대립, 미소의 개입, 친일파의 재등장, 그리고 한국전쟁과 냉전의 과정 등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민족의 비극의 산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방 전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출간되어 회자된 <세 여자>를 보면 박헌영과 그의 부인 주세죽의 독립운동을 보면서 이 분들의 독립활동의 스케일이나 강인함 그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의 역사도 기록하고 알려졌으면 합니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발굴 못지않게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도 계속해서 발굴했으면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 활동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독립운동 서훈자는 15,180명인데 그중 여성 서훈자는 357명으로 전체 2.4%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최근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서훈을 추서한 수치입니다. 영화 암살의 안옥윤, 밀정의 연계 순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는 남성 못지않는 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남편, 자식, 아버지 등 가족을 돌보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수많은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역사도 기록하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해방 이후 발굴되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영웅으로 발전했듯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독립운동가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유관순 열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역사에는 이름 없이 희생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의 역사도 기록하고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충청남도에 제안을 드립니다. 충남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메카입니다. 독립기념관도 위치하고 있고, 윤봉길 의사, 만해 한용운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석오 이동녕 선생, 유관순 열사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충남도가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중국과 역사교류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남도는 중국의 허베이성(河北省)과 가장 가까운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허베이성은 중국내 항일활동의 근거지입니다. 팔로군의 본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맹렬히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1939년에 중국 무한에서 창립된 항일무장투쟁단체 조선의용대(군)가 1941년에 이곳 태항산으로 들어와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삼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와 싸우다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허베이성에는 윤세주, 진광화 열사의 묘소가 우리나라 현충원격인 한단시 열사능원에 안장되어 있고 황북평촌이라는 곳에는 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 등 4인의 용사묘지가 있습니다. 찾는 이가 거의 없어 묘역에는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살피지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살펴야할 것 같습니다. 충남도와 허베이성 간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중국도 항일역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역사교류는 이후 문화, 경제 교류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친구가 되어야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 항일역사에 대한 동질감은 향후 한중 우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또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의 독립운동 기념 활동과 사업은 천안 위주로 전개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위치하고 유관순 열사의 출생지이기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진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남은 도내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1만세운동 이전에는 의병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를 보면, 경상북도독립기념관, 항일의병기념공원이 있고, 경남도에는 밀양독립기념관, 의열기념관, 유림독립기념관 등을 만들어 여러 방면으로 독립운동 기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 백년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이러한 사업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천안에 위치하게 되어 천안 중심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성에 가면 김좌진 장군 기념관,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관이 있지만 지역 독립운동을 종합한 기념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북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각 지역에서 기념되고 체험될 수 있는 사업과 활동들이 전개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좌우 이념을 넘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기록되고 알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도 충남도 정책연구기관으로써 이 분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